

OCT 4 - 6

BUT, I'M LESBIAN

THE 2ND LESBIAN FESTIVAL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두번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걸

제 두번째 레즈비언문화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2004.10.4. →2004.10.6.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 태 소 녀 하 늘 을 날 다

들어가기 전 ←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소개 04
이것은 기본 06
이것은 유우머 08
이것은 복습 09

문화제를 기획하며 10 ←

하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

첫사랑 + 정체화 :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다 13
첫사랑 이야기 16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19
중등교육에서의 레즈비언 차별 22

현재, 변태소녀 하늘을날수있을까? ←

대담 - 커밍아웃 후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 33
아웃팅은 범죄입니다 41
청탁 - 이화 이반 커뮤니티 小史 43
변태소녀, 다시 날다 56
이화에서 레즈비언인권운동하기 58

미래, But, I am a Lesbian! ←

청탁 - 30대 레즈비언의 삶 63
내가 원하는 미래 : 내가 꿈꾸는 나의 '가족' 67
먼훗날의 나의 딸에게 69
깨진 꿈: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다 72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74

단체 소개 ←

레즈비언 인권운동 4개 단체 연대체(가) 77
반성폭력 네트워크 85
한국동성애자연합 86
조이토마토 87

참고문헌 및 웹 스무 88 ←

변태소녀 그녀들은 누구인가 → → → → → → → → → → → → →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우리는 모두 레즈비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는 하늘을 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사라져버린 날개를 함께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변태소녀 그녀들은 어떻게 나는가 → → → → → → → → → → → → → →

2001년 자치단위 인준 이전 활동

2001. 5 대동제
-무지개 자보, 플랭카드 학내 게시, 장기자랑 참여, 폐막제 줄다리기 참여
2001.5-6 내부 세미나 진행
2001. 7 '여성이반 인권캠프' 주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주최)
2001. 9 학내 교지와의 인터뷰
2001. 9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1 참가
2001.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동성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네트워크' 참여
(끼리끼리외 이반 커뮤니티 참여)
2001. 11 학내 게릴라 언론 '야'와 인터뷰

2002년 자치단위 인준 이후 활동

<2002>
2002. 3 학내 정식 자치단위 인준
2002. 3 3.8 여성의 날 기념 학내 사업
-레인보우 뺏지, 퀴어 팬시상품 판매(수익금 끼리끼리에 기탁)
2002. 3 3.8 여성의 날 기념 무지개 시위 주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끼리끼리 등 공동주최)
2002. 3 페미니즘 문화제 참여 - 퍼포먼스 기획, 자료집 글 기고(이화여성위원회 주최)
2002. 4 이화 레즈비언 엠티 기획

2002. 4 연대 컴투게더 7주년 기념식 참여
2002. 5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기획(관악여모 등 공동기획)
2002. 5 이화 대동제 일일 주점 개최
2002. 6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2 후원, 참가
2002. 6 한국대학생 신문 인터뷰
2002. 6~9 외부 간사 초청 오픈 세미나 진행
2002. 7 한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2002. 8 제 5회 청소년 인권 학교 주최(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컴투게더 공동 개최)
2002. 9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엠티 기획(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5 공동기획)
2002. 11 중앙대 이반모임 '레인보우 피쉬' 영화제 참여
2002. 12 밝히는 영화제 개최(끼리끼리 공동개최)

<2003>
2003. 3 새내기 동성애자 맞이 사업-플랭카드와 자보작업
2003. 3 자치단위 홍보-영상물 제작, 상영과 자료집 제작, 배포
2003. 3 반성폭력 네트워크 캠페인-자료집, 뺏지 배포
2003. 3 3.8 여성 무지개 시위 참가(다름으로 닮은 연대 주최)
2003. 4 연대 컴투게더 8주년 기념식 참여
2003. 4 국가인권위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권고지지 성명서 발표
2003. 3~ 퀴어문화축제 2003 조직위원회 결합(꾸꾸-홍보국장)
2003. 1~동성애자 자긍심 갖기 세미나 진행 (끼리끼리 간사 박통)
2003. 5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개최
2003. 8 제 6회 청소년 인권 학교 주최(공동주최)
2003. 9 이화여자대학교를 "성적지향에 의한 교육기관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2003.12 변날 해소 위기

<2004>
2004. 2 변날 해소 자료집 준비
2004. 4 변날 재결성
2004. 4 총학생회에게 변날 자치공간 사용권 확보를 위한 질의
2004. 5 반성폭력네트워크 재정비
2004. 8 토론회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 주최
(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주최)
2004. 8 레즈비언인권운동가 MT 및
2004. 9 웹진 또다른 세상 기획 업데이트 글 기고
2004.10 두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개최

이것은기본↗

동성애(Homosexuality), 동성애자(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지요. 따라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한 개인에게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한편 우리는 주위에서 '동성연애(same-sex act)' 혹은 '동성연애자(호모,Homo)'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관계,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being)인데 말이지요. 따라서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즈비언입니다. 즉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 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양성애자(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지요. 퀴어는 동성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 등 모든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반(iban, 二般, 異般)

이반이라는 용어는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하는 이반(二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이반(異般)의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어떤 성에게 이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한 개인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의식하고 자각하여 자신을 규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주지만, 성 소수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팅은 성 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성 소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동성애 공포증,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 혹은 혐오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혐오범죄를 만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데 괴로움을 겪도록 합니다. 특히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게도 내재화되고, 실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 이것은유우머!

외국에서는 레즈비언 내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현실적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꽤 재미가 있어서 실어봅니다 :)

골드 스타 레즈비언

절대로 남성과는 고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레즈비언.
남성과 고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레즈비언들을 싫어한다.

립스틱 레즈비언

매우 여성적인 레즈비언.
이들은 레즈비언 문화가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며
레즈비언이라는 말조차 좋아하지 않는다.

베이비 다이크

25세 미만의 레즈비언

그라놀라 다이크

채식주의자이고 뉴에이지에 심취한 레즈비언.
'스패로우', '라벤더 크리스탈파워'와 같은 이름을 즐겨쓴다.

안드로 다이크

특별히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은 레즈비언.
70년대 부치/팸 문화에 반발하여 등장하였다.

플란넬 셔츠 다이크

특별히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으며 활동적인 레즈비언.

↙ 이것은복습

작년 문화제의 기조는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였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이 자주 묻는 것들을 역으로 질문해 본 것이지요.
자, 복습해볼까요?

역질문 : 이성애자들에게 궁금한 것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에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 경험없이 어떻게 이성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유혹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성애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요즘 이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다 끌리나요?
당신은 이성과의 우정을 사랑과 혼돈하는 것이 아닌가요?

→ 문화제를기획하며 ←

한국 땅에서 레즈비언 문화제가 두 번씩이나 열립니다. 미인선발대회도 아니고, 수능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퀴어 페스티벌도 아닙니다. 레즈비언 문화제입니다.

두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5월 첫 번째 문화제를 개최하며 겪었던 대 레즈비언 혐오범죄들은 변태소녀들의 날개를 푹푹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화제 당시, 변태소녀들은 자료집과 포스터 전부를 도난당하고 포스터와 자보 그리고 플랑카드를 훼손당했으며 레즈비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가득한 게시물들을 보았습니다. 변태소녀들은 호모포비아가 극심한 학내에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해소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혐오범죄로 성 소수자를 위협해도,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에서는 나의 레즈비언 정체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살펴봅니다.

<과거 - "엄마, 나 학교가기 싫어!"> 에서는 10대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정체화 과정을 다룹니다. 특히 정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기관에서의 동성애 상담의 문제점, 중등교육에서의 레즈비언 차별 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재 - 변태소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에서는 현재 이화내 레즈비언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커밍아웃/아웃팅 관련 이야기들을 다루고, 이화 레즈비언 친목 커뮤니티의 역사와 이화에서 레즈비언인권운동하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미래 - But I am a Lesbian!> 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레즈비언 정체성을 애써 없애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음을 이야기합니다. 30대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우리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레즈비언 가족 만들기와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인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아직 변태소녀들은 날개를 펼치는 정도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대 레즈비언 혐오범죄들이 터지고, 문화제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이화에서는 몇 번이나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보들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화제 때 레즈비언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학내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레즈비언 혐오증 역시 드러나게 하고 투쟁의 대상을 구체화시켰던 것처럼, 이 번 두 번째 문화제에서도 분명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가 이어지길, 그리고 마침내 변태소녀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과거

"엄마, 나 학교가기 싫어!"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다.

para

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해왔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쭉 거슬러 현재에까지 이르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과거'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내가 과거 속에서 미래를 향해 성장해서 지금의 '나'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나'는 단순히 '현재의 나'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같은 나의 과거 얘기들이 나의 미래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 나는 그렇게나 중요한 나의 과거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처음 본 그녀는 털털하고, 유머 있고, 지적이며,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가진 그런 요소들이 그녀를 화려해 보이게 했지만 나는 그녀 안의 우울하고, 염세적이며, 쉽게 상처 받는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 작은 새와도 같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괴로웠지만 모든 걸 다 감싸주고 싶은 그녀를 향한 애정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그녀가 따뜻하게 나의 손을 잡아 주었던 날, 그녀는 내게 커밍아웃을 했었다.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해주고 뒤도 돌아봄 없이 뛰어가던 그녀를 보면서, 나는 내 앞에 그녀에게로 향해 열려진 문을 느꼈고 그 문이 나의 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문을 통해 그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알지 못하던 '또다른 세상'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안의 그녀, 그 문안의 그녀만을 쫓으며 두려움에 절어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다가 점점 내가 그녀를 잊으려고 힘들게 노력함과 동시에 '또다른 세상'에도 적응하기 위해 애를 썼다.

처음으로 큰 맘 먹고 나간 오프모임에서 내가 레즈비언을 향해 가졌던 뿔 달린 사람일거라는 편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 같은 슬픔, 같은 기쁨 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후로 나는 레즈비언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중독 되었었다. '중독 되었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그 당시엔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만나러 이리 저리 시내거리를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주를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는 공부에 전혀 신경쓸 수 없었다. 아프다는 핑계로 학원은 빼먹기 일쑤였고, 뚝뚝 떨어지는 성적으로 담임에게 불려갔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날리는 나를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레즈비언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것 밖에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던 안정감과 이해받고 있다는 소중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도 그만 둘 수 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른 레즈비언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다른 곳에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나서, 결국 그들로부터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데 썼던 나의 모든 에너지를 공부로 다 쏟아 부었다. 방황하며 흘려보낸 것 같은 1년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리고 그제야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서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호모포비아의 바람이 불어왔다. 나의 친구들 중 일부는 머리스타일이라든가 행동 등이 남자같다는 이유로 레즈비언으로 불리면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고, 소외당했다. 내가 그들이랑 친구라는 이유로 나 또한 의심아닌 의심을 받았고, 그들과 친하지 않은 내 친구도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소외당할 위기에 있었다. 그래서 레즈비언으로 불리던 친구들은 일부러 학교에서 나와 가까이 어울리지 않으려 애를 썼으며, 그런 일들로 인해 소외당하던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마음의 호모포비아와 아웃팅에 대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를 향한 그런 사회의 억압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랬었고, 레즈비언으로서의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었고[1], 그리하여 아무런 억압 없이 살아가길 바랬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던 레즈비언 커뮤니티들을 하나둘씩 탈퇴했고, 우리학교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냈다. 그러나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조용히 지낸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랬다고 해도, 내안의 '레즈비언으로서의 나'인 진실한 '나'는 햇빛을 보지 못해 말라죽어 가고 있었다. 바짝 말라가는 감정들,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아들, 내 눈을 적시던 외로움.. 이런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말할 곳도 없는 현실이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나는 '나'를 살려야만 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내 눈앞에 하늘을 향한 문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레즈비언으로서 날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말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으리라는 다짐에 다짐을 하며 날개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리하여 나는 새롭게 나를 정의하고, 스스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환경들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나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들이 레즈비언인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레즈비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1) 그 때의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과 연애에 국한 되는 얘기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삶 전부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힘있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그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위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커져 내가 변날의 문화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어느덧 나는 지금 이미 과거를 지나 현재의 나로 이곳에 있다. 지금의 내가 '나'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기 까지 나는 더디게 또는 빠르게, 힘들게 때론 힘있게 과거를 지나왔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모르던 새로운 면(글 속의 나이던 아니면 자신이던)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언뜻 길을 가다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말이다.) 그걸로 나는 나의 얘기가 의미가 됐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고 하건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곳에 있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성장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후에 내가 다시 나의 과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 한다면 그 때는 이미 지금의 나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던 과거의 나로서 얘기 속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과거의 '나'를 되짚으면서 내가 그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때는 또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때는 또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등등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좀 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그런 미래를 향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

첫사랑 이야기

포 포

중학교 때 나는 남녀공학을 다녔다. 쉬는 시간마다 창가에 붙어서 운동을 하는 남자아이들에게 열광하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나는 같은 반 여학생이 제일 좋았고, 내 옆에서 졸고 있는 짝꿍이 좋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는 그것이 다른 아이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아니, 나의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당시 동성애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것은 아마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좀 달랐다. 고등학교는 이성교제를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말들도 많았다. 입학식이 지나서 얼마뒤 그녀를 보았다. 샛노란 개나리와 부서지는 봄볕을 배경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한 눈에 반해버렸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그녀가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_-) 약간 긴 듯한 커트 머리에 엷은 갈색으로 염색한 그녀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수줍음 많은 아이였지만 용의주도하게(?) 그녀의 신상명세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고 차근차근 이름을, 반을, 생일을 그리고 삐삐번호(그 당시에 학생의 필수품은 바로 삐삐-_-)를 알게 되었다. 내가 수 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한 눈에 그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나는 우연히 같은 반 친구들의 대화 하던 중에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별 뜻 없이 한 이야기였겠지만 괜히 찔리던 나에게는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혔다. 나는 심각하게 내가 '비정상'이며 '변태적'인 인간이며 어쩌면 '정신병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미친것일까.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암적인 존재인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피해준 일 없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비록 강요된 착한 아이일지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평범하고 착실한 범생이였다. 그런 내가 단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는게 괴로웠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죄스러웠다. 나는 여름방학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수없이 고민했다. 처음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로 좋았던 성적이 끝없이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 간신히 중위권을 유지하는 정도가 되자 나의 부모님은 방학 동안 외출 금지령을 내리셨다. 두 분 모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루한 방학을 멍하니 혼자 보내야만 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남으면 나는 방

의 커튼을 내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끝없이 침잠했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괴롭고 괴로워하다 그녀가 미치도록 보고싶었다. 먼 발치에서라도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전보다 더 괴로워했다. 미친게 확실하구나. 포포야. 너 정말 미쳤나봐. 넌 비정상이야.

..너같은건 죽어야해.

..죽는게 나아.

하루종일 나한테 쏟아지는 비난들. 그렇게 나의 잔인한 17살이 지나가고 있었다. 과정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나는 결국 다시 일어섰다. 나를 완전히 나로 긍정하지 못한 채, 역시나 강요된 착한 아이로서 새로 시작된 학기에 맞춰 학교에 나갔고 대학을 가기 위해 적당히 공부했으며 어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성적을 올리고 친구들과도 마찰 없이 잘 지냈다. 그 당시 내가 했던 생각은 '그녀를 잊자'였다. 내가 그녀만 잊는다면 나는 다시 '정상'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녀'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생각하며 썼던 일기장을 불태우고 우연히도 사진의 배경으로 찍힌 그녀의 모습이 담긴 보물 같은 사진도 태워버렸다. 그녀와 죽어도 마주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내가 그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몹시도 억눌린 채 한 학기가 지났다. 그런데 나에게로 '그녀가 왔다.' 그녀를 보면 오던 길도 되돌아가던 나였는데 불쑥 내 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냥 뜬금없이 '너, 어디사니.'라고 묻는 그녀의 속삭이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혹시 환청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네?'하고 되물었다. 별 것 아닌 것이었지만 나는 심장이 터져 나갈 듯이 기뻤다. 하루 종일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암덩어리라도 좋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좋다. 나는 그녀가 있는 이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하고 싶다. 그러고싶다.. 이런 생각이 미친듯이 밀려왔다. 그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나만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주면 돼. 세상이 날 욕하면 나도 세상을 욕해줄거야. 그렇게 불끈, 갑자기 힘을 냈다.

결국 나는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고 마침 등하굣길이 비슷해서 어쩌하다 보니 함께 통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께 지낸 근 1년 동안을 나는 지금도 설렘으로 기억한다.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기 프로젝트를 세웠다. 이름하여 100일 간의 노래선물.(나름대로 나도 로맨티스트였다-_-;) 매일 밤 12시가 되면 그녀의 삐삐에 노래를 남겼다. 첫 날은 100, 그 다음날은 99, 또 그 다음날은 98… 이렇게 숫자를 줄여 찍으면서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 어떤 부분을 녹음해줄까.. 이런 설레임으로 즐거웠다. 그리고 0이 되는 날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절실했고, 신중히 살펴 본 결과(물론 나의 관점에서였겠지만) 그녀도 나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줄어가는 숫자만큼이나 내 설레임이 커져갈 무렵, 마침 우리 학교에 한 선배가 동성교제로 인해 체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친구일 뿐이라고 끝까지 부정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그녀들을 교실에

도 들여 보내지 않고 괴롭혔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그녀들은 혐의(?)에서 벗어나서 나를 안심시켰다.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동성교제는 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려던 마음을 다시 망설임으로 접었고 또다시 가슴앓이를 했다.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졸업이란걸 했다. 그녀가 떠나고 죽어버린 학교에서 나는 다시 공부했고, 여전히 아팠고, 가끔은 그녀의 흔적을 찾아 생각에 잠겼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상의 눈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을 해하지 말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 또 사랑이 찾아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흐를수록 사랑이 찾아 온다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만났던 애인들과 친구들, 지금 내 애인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다. 내가 대다수의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의 반려자를 꿈꾸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so what? 나는 이제 나를 긍정하고 사랑한다. 나는 레즈비언이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para

저기요, 혹시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괴로워해본 적 있어요? 아님 토마토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친구들과 학교에 알려져서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에엥, 갑자기 웬 토마토냐구요? 토마토를 '여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레즈비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나 경험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 레즈비언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중등교육 속에서 그러한 경험에 훨씬 더 노출되기 쉬워요. 또한 그녀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느냐 하는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억압하는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거에요.[2] 그처럼 자신 내부의 혼란과 주위의 다소 위협한 상황들에 그녀들은 매우 힘들거에요. 사람들은 보통 힘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이 힘들어, 휴우" 이런식으로요. 물론 얘기한다고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일이 잘 있지도 않고, 보통 그 얘기를 듣는 상대가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해주기란 어렵죠. 근데도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주변에서 대개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얘기해서 뭔가 달라지고, 해결됐음 하는 바램보다도 그냥 얘기하고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소년 레즈비언들은 그렇게 자신의 무언가를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상대를 주위에서 찾기도 힘들어요. 친한 친구 중에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 믿을만한 레즈비언 친구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혼자 괴로워하게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으니 그곳에 가입해서 그곳에 글로 자신의 얘기를 적거나 오프모임에 나가서 자신과 비슷한 레즈비언 친구들을 만나보겠죠. 아니면 한번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려고 시도해보겠죠.[3]

그녀들이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겠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다소 이상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일거에요. 그러다 상담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들은 자

2) 구지 청소년 레즈비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청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레즈비언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 시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고민을 하게 되는 그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때가 사실 제일 혼란스럽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녀들의 얘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글을 쓰는 것이에요.

3) 여기서의 상담이라는 건 정신병원에서 하는 의사와의 상담이 아니라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와의 상담을 말하는 거에요. 혹시나 오해할까봐요. :) 그리고 이러한 상담은 우리가 평소에 힘들 때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것은 뭔가 자신에게 해결이 될만한 무언가를 던져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들일까 생각해보겠죠? 가장 쉽게 청소년 레즈비언인 그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상담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접근하기 쉽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진 상담원도 호모포비아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더라구요. 그 예로 어떤 사람의 상담 요청에 대한 상담원 측의 답글을 하나 보여 드릴께요.

2004년 04월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입니다.
학교에 굉장히 멋있는 여자친구가 있나보군요.
그 멋진 친구만 보면 얼굴도 빨개지고 마음도 두근거리게 되어 혹시나 동성애가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같은 동성끼리라도 너무 멋진 사람을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호감이 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기에 동성 친구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누구나 몇 번 겪게 되는 경험이랍니다.
그러니 너무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그 감정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다른 곳으로 그 감정이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동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음도 알아 두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에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고민 있을 때 다시 글 남겨주세요.

잘 보셨어요? 혹시 밀줄 그어진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동성애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분께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은 인정하고, 고민하기 보다도 그냥 두면 사라지게 될 한 때의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한 결국은 이성애를 하게 될 거고, 아니면 그걸 선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담 글이 상담을 요청한 분께 얼마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글을 통해서 그 분이 더욱 더 자신의 호모포비아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담의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통념과 호모포비아에 사로잡힌 상담원을 만나고 있을 많은 레즈비언들은 혼자일 때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자신은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국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담사례집을 냈더라구요. 그 자료집의 들어가는 말에 보면 '물리적 ·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올바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허위 정보가 떠돌고 있다. 인권 단체를 접하게 되더라도 성소수자 관련 상담의 경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 편견 등으로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자료집이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남겨주셨죠.) 다양한 사례들에 있어서도 레즈비언에 대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집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레즈비언들이 봐주었으면 좋겠고 고민을 털어 놓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녀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죠. 자신에 대한 호모포비아와 끼리끼리의 긴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짐작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 레즈비언들이 현재 끼리끼리에 상담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도 말이에요.

제가 너무 '한국 청소년 상담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 또한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네요. 근데요, 동성애 관련 기관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상담소들은 이렇게 상담해주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체 하나를 꼽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의 성격을 띄는 상담소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체를 꼽은 것이죠. 아님 제가 너무 끼리끼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끼리끼리도 레즈비언관련 기관 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꼽힌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비난도 옹호도 아닌 현실을 말씀드렸는걸요. 한국에서 레즈비언들이 제대로 상담 받을 곳이 흔치 않다는 얘기와 상담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하기까지 무척 힘들다는 얘기요.

그래요, 현실은 힘들죠. 그렇지만 힘든 현실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이번에 끼리에서는 상담사례집도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요, 어디서 상담을 받던 레즈비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 레즈비언들이 덜 힘들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앞으로 레즈비언으로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상담 받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노력해봐야겠죠? 헤헤.

중등교육에서의 레즈비언 차별

나 루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명백히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그것은 학교다.

학교는 모든 사회계급들의 취학연령 자녀들을 수용하며, 이후 가족 국가장치와 학교 국가장치 사이에 꽉 끼인 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여러 해 동안 새롭거나 낡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인 '노-하우' 들(불어·산수·자연사·과학·문학 등), 또는 단순히 순수상태의 지배 이데올로기(윤리·공민교육·철학 등)를 주입하여 가르친다.

(중략)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어린이들 전체를 일주일에 5,6일 그리고 매일 8시간씩, 그 여러 해 동안 의무적인(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지만 무료인) 청중으로 만들 수는 없다.

-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중

알튀세르는 중세의 교회가 담당했던 역할을 근대이후 공교육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작동하며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의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담론과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해석하기에 따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9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인권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동성애 담론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동성애(자)를 적극적으로 배제시켜왔다. 그리고 최근이 되어서야 교육 안에서도 동성애 이야기가 더듬더듬 시작하였지만 그 내용과 방식은 절대로 '친동성애적'이지 않다.

Ⅰ. 교과서 및 교육자료 내용상의 차별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성 도덕이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性)을 매개로 한 향락 산업이 번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신 매매범이나 가정 파괴범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 동성연애,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 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상업주의에서 기반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105-106pp, 고등학교 윤리, 교육부, 1998)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은 생식이라는 생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102p, 같은 책)

'시대가 바뀜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성관이 변화하고 있다.' (105p, 같은 책)

'사랑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생물학적·사회적 차이는 명백하다. 이러한 차이를 능력, 지위, 역할에 따른 차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헌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헌신과 믿음이 충분히 누적되면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친밀성을 가지게 되고 점차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반자적인 순수한 관계'로 발전해 간다. 성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통합이 가능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적 쾌락은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107p, 같은 책)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자도 기꺼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109p, 같은 책)

6차 교육과정 윤리 책의 105p를 보면 성 도덕 문란의 예로 '동성연애'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함께 열거된 다른 예들이다. 에이즈,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의 나머지 예들은 모두 어떤 '상태'나 '감정'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연애'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어 그리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4]'이므로 '동성연애'는 '동성에게 애정을 느끼어 그리워하는 일 또는 그런 감정과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워하는 감정 자체가 성도덕의 문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상대가 동성이라는 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 때, 동성을 마음으로만 '순수하게' 그리워하는 것이 성의 문란인가.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본래 단어의 사전적

4) 네이버(www.naver.com) 사전 검색, 사전에서는 연애를 '어떤 이성(異性)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어 그리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어떤 이성'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 인용했다.

정의와 다르게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동성애자가 상대와의 감정 교류 없이 단지 성행위만을 행한다는 편견을 포함하는 것이다.[5]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윤리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성애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성을 생식만을 위한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의 연애관이나 애정관이 아닌 '이성관'으로 표현하며, 남녀간의 사랑과 남편-아내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대부분이 처음부터 이성애만을 전제하고 있다.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 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도를 지차니 성 도착증, 이상 성욕 등은 청소년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 의식과 성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 연애자, 무분별한 이성간의 성 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약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맞은 사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게서 발견된다.'

(268p, 고등학교 교련, 교육부, 1998)

교련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와 '동성 연애자'를 혼합해 쓰는 등 정확한 용어를 규정짓지 않은 채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으로 동성애를 정의내리지 않고 단지 '같은 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검증된 에이즈 감염경로는 4가지 정도이다. 첫째 HIV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둘째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한 경우, 셋째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모가 감염됐을 경우나 수유자가 감염된 여성일 경우이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와는 달리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거의 0%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련교과서에는, 교과서의 역할인 올바른 지식 전달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지식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교과과정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7차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가 개정되기 이전,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의 진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성 도덕 문란의 예에서 '동성연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윤리 교과서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5) 이렇게 '동성연애'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회문화적으로, 맥락적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그 단어가 갖는 부정적 함의는 너무나 크고 강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교제라는 말은 써도 이성연애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때문에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동성연애'라는 단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성행위 만을 부각시키는 '동성연애' 대신 '동성애'를 쓸 것을 주장한다.

등장시키고 있다.

'정보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어서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성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 도덕의 금기 사항이 무너지고, 동성애, 혼전 성교, 포르노그라피, 성 매매 등 다양한 성 문화가 범람하고 있어서 성 윤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103-104pp, 고등학교 시민 윤리, 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주장을 펴는 자유주의 성 윤리는 온건주의와 급진주의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도덕적인 성 관계의 조건으로 보는 입장인데 비해,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는 사랑이 없어도 자발적인 동의만 있으면 동성애, 성 매매, 근친 상간 등 어떤 유형의 성 관계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5p, 같은 책)

6차 교육과정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교과서의 주된 내용과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예시, 삽화 등은 철저하게 이성애를 전제하고 있었다. 이성애적인 관계와 이성애 결혼, 그리고 이성애 가족만을 제시했다. 그리고 위에 예로 들었듯이 동성애는 윤리나 교련 등 매우 소수의 교과에서 드물게 등장했다. 이 때 동성애는 이러한 '옳고 정상이며 평범한' 이성애와 대립하여 '그릇되고 비정상인' 것으로 다뤄졌다.

Ⅱ.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태도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짤막한 정보전달을 할 경우뿐이었다. 한국의 고전문학을 배우면서 이 때에는 미소년을 상대로 한 동성애가 있었다고 말을 한다든지 **시인은 동성애자였다는 식의 말을 별 의미 없이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의 경우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동성애', '레즈비언'이라는 용어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사용한 농담을 많이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농담은 동성애를 '비웃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학생 둘이 손을 잡고 있으면 '너네 둘이 사귀냐?', '아예 껴안고 있지 그래?', '레즈비언이구나' 등의 말을 해서 둘의 수치심을 유발한다거나[6] 다른 학생들의 웃음을 유도해내는 것이

6) 이성애중심의 사회, 동성애가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은 상대가 기분 나빠할 것을 의도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성애자가 저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도,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아웃당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

다.

교사들이 '동성연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성애자를 설명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개념은 '공적인 것', '검증되고 명확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한창 하리수가 나오고 홍석천이 커밍아웃했던 시기라서 수시 전형 면접 때 동성애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했죠. 우리 학교에 면접 상담을 거의 도맡아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시간에 들어와서는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질문이 면접 때 나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묻더군요. 동성애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도 아니지만... 몇몇 애들이 찬성한다고 대답할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체보전이고 다른 하나는 종족번식이다. 그런데 동성애는 두 번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으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고 때문에 비정상이다. 면접에서 교수가 이렇게 반박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너희는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대답해라,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많다... 어이가 없었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 모두 끄덕끄덕 이해하는, 아니 학습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처럼 학생들은 비판 없이 교사들의 언어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교사들의 '사적인 생각'은 어느새 '공적인 가르침'이 되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가치관이 특정집단을 배제, 소외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일 때에는 큰 문제이다.

Ⅲ. 또래집단 내에서의 폭력

최근의 청소년 레즈비언들은 전보다 훨씬 가시화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만 들지 않으며,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또래집단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들끼리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친구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이 그렇게 심하게 이상하거나 비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청소년 레즈비언들의 가시화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는 분위기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청소년 레즈비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즉 그들의 자긍심 향상이나 그들과 친분이 있는 몇몇 또래집단에서의 '동성애 허용'의 상황과는 다르게, 정작 현실에서의 동성애자의 위치 및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테면, 또래집단 사이에서는 누가 레즈비언이다 하는 소문은 아무렇지 않게 퍼진다. 그러나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 그 청소년 레즈비언의 형제자매 및 부모, 그 지역사회는 절대 한 개인이 아웃팅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지가 않다. 즉 레즈비언이 늘 염려하게 되는 아웃팅 문제가 청소년 레즈비언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대다수의 또래 청소년들과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회 분위기는 충분히 '동성애 혐오적'이다.

"동성애에 대한 말은 하루에 한, 두 번씩은 꼭 들어요. 연예인 중에 누가 게이래, 누가 레즈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미친 듯이 욕하는 애들도 많죠. 대놓고 더럽다고 욕하고."

이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그런 혐오감을 폭력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고3때 야자하고 있는데... 그 애들은 사귄다는 소문이 학교에 자자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는데 그 소문이 돌고 나서 친구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욱 둘이 붙어다녔는데 그 게 또 더 소문을 강화시키고. 야자하고 있는데 그 반 애들이 걔네 책상 뒤집고 책 던지고 그러면서, 너네 레즈 맞지? 하면서 사실대로 불라고... 걔네는 계속 울고. 애들은 더러운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별로 말리는 애들도 없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게 정말 내가 레즈비언이라 싫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몰려다닌다고 싫어하는 게 많으니까요. 특히 선생님들은 자꾸 머리카락 좀 치워라, 머리 길러라 그러고... 애들은 걔가 레즈가 아닌데도 머리 모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레즈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고, 학교에서 티 안 내고 인터넷에서만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저랑 같은 이반이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싫다고 하고 학교에서 친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머리 자르고 오면 '너 레즈 같이 됐어'하면서 놀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학 가면 머리 기르고 여자처럼 하고 다닐 거래요. 여자답게 하고. 남자는 안 사귀겠지만 지금처럼은 안 할 거라고...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게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막 싸웠지만 저도 대학 가면 머리 기르고 치마 입고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Ⅳ.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동성애자 배제 및 차별

교사와 또래집단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동성애 혐오 범죄가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이 학교 차원의 대응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를 듣게 한다든지, 학생 성교육 커리큘럼에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넣는다든지, 동성애 혐오 범죄를 일으킨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다든지 하는 일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학교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담소 설치이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상담실에 접수된 내담사례 통계 결과, 총 내담 사례 중 청소년 관련 내담이 26%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그만큼 청소년 관련 동성애 상담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중등교육기관 내에 상담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중등교육기관 내에 상담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담자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되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 상담기관이 부재하거나 학교에 상담하기 어려워서 청소년 상담센터나 성교육센터를 찾아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 상담이나 성교육 매뉴얼 자체에 동성애 내용은 담겨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받게 되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다. 학교에서든 상담기관에서든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상담내용은 대개,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우정을 착각한 것이다, 이성애자가 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등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 상의 문제점들, 교사와 학생들의 편견 그리고 제도와 기관상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시정할 수 있는 공적 권력인 학교와 교육부는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성애자 차별과 배제를 행사하고 있다. 자료 1은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이다[8].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수업시간에 혐오발언을 한다거나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아이를 불러 다그친다거나 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로 아웃팅을 당했거나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아이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이전퇴학을 시키기까지 한다. 이렇게 한 청소년 레즈비언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이전퇴학을 강요당하는 경우, 학교 전체에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까지 아웃팅을 당하게 된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처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통해 이성애자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학습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 청소년들 혹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그런 동성애 혐오를 내재화시킬 것이다.

7)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47건의 내담 사례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내담 사례를 분석하면 청소년 관련 내담이 26%, 성정체성 관련 내담이 24%, 동성 교제 관련 내담 사례는 24%를 차지했다. 그 외 성관계 관련 내담 6%, 정보와 폭력·범죄 관련 내담이 각각 4%, 커밍아웃을 비롯한 대인 관계 문제에 관한 내담이 3%, 기혼 여성 내담이 3%, 기타 내담이 6%를 차지했다.
p.13,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4

8) 정확한 출처는 알지 못하며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었다. 자료의 내용을 보아 진주 지방의 한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가치관을 전파하고 학습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등교육기관은 2차 성징과 사춘기를 겪으며 육체적·심리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성장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닌다. 대부분의 레즈비언들은 10대에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중 약 63%가 10대에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9]. 이렇게 처음 성정체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10대 레즈비언에게 지배적인 공간이 학교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를 직, 간접적으로 학습시키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 레즈비언들은 혼란과 공포,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들은 동성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문화 속에서, 혹은 동성애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문화 자체'를 경험하거나 학습하고 있다.

청소년 레즈비언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이 그 존재만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 하루 빨리 청소년 레즈비언에게 적절한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교육, 이들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실현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언제부터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조사결과는 10대 62.9%(353명), 20대 28.2%(158명), 10세 미만 6.4%(36명), 30대 1.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48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박수진, 2004, 석사학위논문

변태소녀, 하늘을날수있을까? 현재

[대담] 커밍아웃 후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

장소 :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방
시간 : 9월 1일 저녁밥 먹을 시간
모인 사람 : 마틸다 반디 휘린 코아
정리 : 파스

마틸다, 반디, 휘린, 코아, 파스 Flying girl 5명들이 모였다. 그녀들이 모인 이유는 최근 커밍아웃에 대한 지루하고 긴 논의를 하던 중, 커밍아웃을 한 후 반응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이라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양과 각색 중 실망과 기대의 차는 엄청나서 말인데 우리의 눈높이 즉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작당 했다는 이 말씀. 원 참 우리가 무슨 죽을죄 졌는지 이런 얘기하느라고 모이는 것도 귀찮은데 바쁘신 몸들이라 모이는 것만 장장 일주일이 걸렸다. 여튼 모인 것까진 Good인데 레즈 4명만 모여도 한 물이 굿이 되어 방세도 한이 안 풀린다는 것을 톡톡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결실이라면 결실 인 것이 그대들이여 인간성 하나 믿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대담을 꼭 보시길!

처음에 말 꺼내기가 무섭게 서로의 반응을 주시하며 눈치 보던 그녀들이 '맞어 맞어' 웃음을 연발하며 진행되었던 이번 대담의 성공기는 마틸다부터 말문을 열었다.

그녀들의 커밍아웃의 경험

마틸다 : 나 같은 경우엔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게 커밍아웃을 여러 번 해 보았고 그 반응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 특히 후배들은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전하는 입장이고 듣는 입장에서 보면 놀리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느낀 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

코아 : 그게 언제였어? 나는 대학 다니면서는 대개 그랬던 것 같은데, 중 고등학교 친구들 같았으면 어림없는 얘긴 것 같아.
마틸다 : 아 맞아~ 나 대학 때 얘긴데. 그러니깐 지금까지 커밍아웃의 경험이 많아지면

서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할 사람에게만 커밍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휘린 :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잖아. 나도 만약에 대학친구한테, 음 있지도 않지만(-.-;), 머 여하튼 걔가 어떻게 반응해도 어디다 내 얘기만 안하고 다니면, 쌩 까면 상관없는데 머 이를테면 되게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소중한 친구에게 커밍을 했을 때 얘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면 맘이 많이 상하지.

마틸다 : 어떤 걸 기대하는데?

휘린 : 그냥 '어 그래' 머 이렇게 끝나는거... ㅡ.ㅡ;

코아 : 어 그래ㅋㅋ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어 그래'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마틸다 : 맞아!! 그래 커밍아웃을 하면 얻고 싶은 반응은 그걸 쫌 기억해서 내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휘린 : 음 이건 내가 어렸을 때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고2때 내가 친구들한테 "나 여자랑 사귄다." 하니깐 얘들이 '야~ 어야' 이렇게 안하고 "그래♪"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까먹은 거야! 그래서 고3때 다시 연애를 하다가 얘들한테 걸린 거지. 그것도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자질을 하다가 걸렸어. 근데 얘들이 "야 누구야 누구?" 하는데 고2때는 내가 아직 레즈비언이라 정체화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이걸 걸렸을 때는 정체화를 한 시기여서 얘들이 물어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도 안하고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딱 묻는 거만 대답하다가 결정적으로 한 질문에 내가 쓰러 졌잖아.

일동 : 먼데 먼데????

휘린 : "그럼 군대 갔다 왔어?" 이러는 거야 ㅠ.ㅠ
근데 그때 당시는 고등학생이었고 커밍을 생각 없이 한 거라 반쯤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일 지금 많은 고민 끝에 친구한테 말했는데 1년 후에 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군대 갔다 왔어?"하면 쓰러질꺼 같아.

반디 : 나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 친구에게는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에게 커밍을 했어. 남자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커밍을 한건 아니고 얘가 내가 레즈빠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너 무슨무슨 카페에서 사진 찍었더라." 하는데 얘가 어디 가서 막 말하고 다닐까봐 불안해서 얘기했었어. 다행인 게 걔는 남이 싫어하면 절대 말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아웃팅을 시키고 그럴 애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서 커밍을 하게 된거지.

코아 : 흠~ 그러다가 아웃팅 시키면 진짜 우울하겠다.

휘린 : 그러니깐 안 시킬 걸 알고 한 거지. 믿으니깐..

코아 : 음 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아이와 사귀게 됐는데, 서로가 두렵고 해서 아무에게도 얘길 안했어. 그런데 걔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어!! 그런데 힘든데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는 친한 친구에게 말했는데 글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머 그랬지.

마틸다 : 근데 다들 눈치 채고 있다고 말해~, 솔직히 말 안 했으면 몰랐으면서ㅋㅋ

엄마vs커밍아웃

마틸다 : 엄마한테 커밍을 했을 때, 아빠한테는 하고 싶지도 않고, 흠~ 여튼 엄마한테 뭘 해도 항상 속이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언젠가 알게 되면 그게 아웃팅이 아니라 내가 커밍을 했을 때 였음 좋겠어. 그래서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엄마가 그냥 그러냐고 너가 레즈비언으로 살려면 험난할 테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벌어라.... 이런 반응들을 기대해~ 그러니깐 날 인정을 하는데 내가 힘들 테니깐 엄마가 정말 딸을 걱정해 주는 말들 그런 거. 그럼 고맙게 정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휘린 : 나도 종종 그런 생각 한닷~ 엄마에게 딸이 큰 힘이 되듯이 딸도 엄마가 정말 큰 힘이 되잖아. 나는 엄마가 내가 아웃팅을 당하거나 커밍을 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나한테 배신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고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이해할거라곤 기대도 안한닷~ 그치만 엄마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히면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걔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왜 엄마들이 딸 남자친구 있으면 한번보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밥같이 먹고 그러잖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맥락으로

반응해줬음 좋겠어~

마틸다 : 그러고 저녁에 "걔는 꿈이 머다니?" 이렇게 물어 보고ㅋㅋ

휘린 : 왜 드라마에서 청소년이 이성교제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혼날 줄 알고 쫄아 있는데 엄마가 쟤 누구니 하면서 한번 데려 와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고 (하핫)

반디 : 난 엄마한테 굳이 하고 싶진 않아.. 엄마랑 그다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물론 엄마를 속이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실상황에서 커밍을 할 수 있지도 않고.. 난 내가 있는 그대로 살고 싶거든.. 근데 동생한테는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어~

휘린 : 나도 동생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코아 : 어 나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랴?

코아 : 왜 커밍을 할 때 무엇보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백만 번 고민하다가 하는 거잖아. 특히나 그 상대방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해서 아웃팅의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상대방이 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널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휘린 :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

일동 : 침묵 후 맞어 연발... ^^;;

마틸다 : 근데 아웃팅을 걱정하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잘 못하잖아. 물론 하고 나서도 걱정하고 내 친군 심지어 '그 날 밤에 악몽까지 꿀 정도로 계속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이 커밍을 한 다음 사람들이 막 물어 보잖아. 그럼 여자친군 있냐? 이쁘냐? 몇 살이냐? 이러면서 그 사귀는 사람의 신상명세를 알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상대방을 아웃팅 시키는 건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제발 쫌 물어보지 말았음 좋겠어!!

휘린 :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마틸다 : 난 심지어 20대 중반의 회사원과 사귀는지 아님 학생과 사귀는지 헷갈릴 정도라니깐~

코아 : 그게 무슨 말이야??

마틸다 : 내가 거짓말을 한 거지~ 나 보다 몇 살이나 작은 앤데 회사원으로 둔갑이 되버린 것이지~

일동 : 아~~~

마틸다 : 심지어 하루는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고 물어 보는 거야. 저 사람이지 하면서~

반디 : 그건 정말 아니다~

마틸다 : 물론 그게 감수성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는데 그때 난 머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코아 : 지금 우리가 커밍아웃 후 바라는 반응을 얘기 하는 거지만 반응 중에 마틸의 경우는 정말 바라지 않는 반응인 것 같아.

휘린 : 난 정말 바라는 반응이 있는데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커밍을 할지 고민 중인데 걔가 이렇게 반응해줬음 좋겠어.

마틸다 : 어 먼데 먼데??

휘린 : "어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 (목적어 - 커밍을-.-;;)

(잠시 난리 남. 소란을 진정시키고 다시 대당에 들어감)

마틸다 : 난 친구에게 커밍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어 난 어쩔 수 없는 이성애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다른 모습이라든지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한 애는 어 그럼 난 모지?? 하면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접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야~~ 놀랍게도 걔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과

정에서 여자 얘를 좋아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

반디 : 어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지..

일동 : 오~~

반디 : 주위의 사랑이 커밍을 하니깐, 내 정체성도 확고한 것이 아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겪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혼란기를 겪다가 우연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정체화를 했어.

휘린 : 똑같은 얘긴데 다른 맥락으로, 왜 중고등학교 때 나도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지만 지금 남자친구를 잘 사귄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쩌지? 그러니깐 왜 한때다 이런 거..

마딜다 : 그럼 "두고 봐"이러지~ "너도 두고 보라고"

코아 : 고등학교 때 일인데 옆반 애가 날 좋아했었어.. 그런데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 하진 않았는데 여튼 그러다가 우리 둘 다 대학을 갔어.. 나중에 MSN에서 주고받았나? 그렇게 내가 걔한테 커밍을 하게 됐어.. 근데 걔가 정말 날 부러워하는 거야~~

마딜다 : 부러워 해?? 와 신기하닷

코아 : 응 걔 같은 경우는 커밍을 하고 싶어도 주위의 이목이나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깐 커밍을 하고 반응을 기대하고 싶어도.. 커밍 자체 할 수 없는 애도 있다고..

친구야 안 그래도 돼!

휘린 : 왜 우리가 커밍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친구를 속이기 싫은 이유가 있잖아.. 오늘 머해? 라고 물어보면 애인이랑 같이 있을 건데도 그냥 '친구랑 약속 있어~' 아님 '집에 가야돼~'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경우들. 그리고 이성애자들이 '나 오늘 남친이랑 싸웠어', '오늘 어디에서 밥 먹기로 했어~', '그 영화 우리 애인이랑 보기로 했는데::' 여튼 걔네들처럼 우리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위로 받기도 하고 그냥 너희랑 똑같으니깐 그래서 얘기해 주고 싶은 이유들로 커밍을 하게 되는건데 커밍을 하니깐 그걸 왜 나한테 얘기 하냐

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얘들도 많은 것 같아..

마딜다 : 헉~ 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 친구 맞어요?? 아닌 것 같아~!!!

휘린 : 물론 걔가 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부담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성애자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소하게 그냥 그랬냐고 하면서 넘어 갔을 거 같은데.. 정말 그냥 날 레즈비언 이전에 친구로 생각했음 좋겠어..

마딜다 : 물론 아웃팅의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비밀로서 지켜지기 힘들 수도 있고 커밍을 못 받아 들여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 하고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게 친구가 아닐까??

반디 : 왜 내가 이성애자 친구한테 커밍을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 나중에 대학 와서 한 번 볼 기회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길 하게 됐는데 걔가, 많이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그 얘길 해줘서 고맙다고 니가 그렇다고 해도 내 친구인건 변함이 없고 넌 좋은 친구라고 해서 너무 좋았어.

휘린 :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당장 못 받아 들여도 차라리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고 그래도 넌 내 친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코아 : 친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게 물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분명 친구로 지내고 전혀 섹슈얼리즘을 못 느끼는 얘가 있을 수 있잖아.. 분명히 레즈비언도 그렇거든~ 황당한데 제발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제발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하지 말아줬음 좋겠어.. ㅇㅋ?? 레즈비언이라고 여자라고 다 좋아 하는거 아니잖아~!! 윽~ 나도 보는 눈이 있다고요~!!

반디 :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면서 소위 자신은 cool~~~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볍게 보고 아웃팅을 더 쉽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애.

휘린 : 그래 왜 소위 진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쿨한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 봐 줬음 좋겠어..

마딜다 : 그래도 궁금한 거 물어 보면 좋은데 왜 성적인 얘기 하는 거, 대놓고 여자끼리 섹스가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짜증나더라. 그래서 넌 섹스가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성교육이 시작되는 거지..

휘린 : 그런 경험이 있어?? 되게 무례하다 그건 궁금한 걸 떠나서 되게 무례한 것 같아..

I believe you

휘린 : 지금 우리가 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는 것도 그렇고 커밍을 듣는 상대방이 일반일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깐 일반들을 위한 팁 같은걸 얘기하면 어떨까?

코아 : 지금 까지 얘기 했던 거지. 정말 커밍을 했을 때 난 정말 그 사람을 믿고 한다는 거..

마틸다 :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커밍아웃 후 기대하는 반응보다 커밍 후 나쁜 반응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아..

휘린 : 그럼 바라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라는 반응이 되는 거 아냐?? ^^;;

ㅋㅋ

저녁까지 먹으면서 진행됐던 이번 대담은 엄청난 소화력을 자랑하지 못하는 녹음 테이프와 정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담이 커밍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내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에게 좋은 팁이 됐음 좋겠습니다.
마틸다 코아 휘린 반디 수고 하셨어요~
마틸다, 반디, 휘린, 코아, 파스 Flying girl 5명들이 모였다. 연애에 바쁜 그녀들이 모인 이유는 최근 커밍아웃에 대한 지루하고 긴 논의 중 커밍아웃을 한 후 반응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이라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각양과 각색중 실망과 기대의 차는 엄청나서 말인데 우리의 눈높이 즉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작당 했다는 이 말씀. 원창 우리가 무슨 죽을죄 졌는지 이런 얘기하느라고 모이는 것도 귀찮은데 바쁘신 몸들이라 모이는 것만 장장 일주일이 걸렸다. 여튼 모인 것까진 Good인데 레즈 4명만 모여도 한 풀이 굳이되어 방새도 한이 안 풀린다는 것을 톡톡히 알게되었다. 하지만 결실이라면 결실 인것이 그대들이여 인간성 하나 믿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대담을 꼭 보시길!

아웃팅은 범죄입니다

나 루

아웃팅은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하는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웃팅 당하는 사람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웃팅을 당한 동성애자는 아무런 준비나 대처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당한 것이며, 동성애 혐오적인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웃팅 사례 중에는 아웃팅 이후에 직장을 잃거나 새로운 직장을 갖지 못하며, 가족에게 감금을 당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강제당하고 동성애 혐오범죄에 희생되는 등 한 개인의 삶 자체를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웃팅의 예방

아웃팅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웃팅을 조심하자, 아웃팅을 경계하자고 외치는 것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들이 치마를 입지 않거나 밤거리를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웃팅 예방을 위해 너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꼭꼭 숨겨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웃팅 이후의 상황이 아웃팅 이전까지 쌓아왔던 삶의 기반 모두를 흔들게 됨을 생각할 때 아웃팅은 동성애자에게 있어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몇 가지의 간단한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커밍아웃하기'같은 것이 있겠죠. 커밍아웃은 절대 폭탄발언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커밍아웃을 하기까지는 저 사람이 나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나를 아웃팅시키지 않을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탐색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후에는 '너를 믿지만 이런 점은 조심해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아웃팅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꼭 받아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도 아웃팅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레즈비언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관계나 연애에 있어서 언제나 수평적이고 평등하고 성찰적이지는 않습니다. 레즈비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커뮤니티에 커밍아웃할 때, 너무 쉽게 개인 정보를 알리지는 마세요. 특히 레즈비언 커뮤니티

료"일 뿐이다. 이반으로서의 정체성은 나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숨긴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한 개를 숨긴다는 의미이다. 그 부분을 숨기고 마음편히 대화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 큰맘 먹고 일반 동기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도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내내 친구라 느낄만한 대화의 상대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많았지만, 모두들 동료일 뿐 친구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 해도 나는 그들과 항상 거리를 두게 된다. 성인 일반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성과의 관계, 결혼 이야기에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일반들과는 술을 마셔도 편하게 마시지 못한다. 술김에 실수하여 의도하지 않은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난감할 테니까.

누군들 친구에게 내 사생활을 시시콜콜 말하고 다니느냐.
일반이든 이반이든 모든 것을 털어넣고 말할 상대는 어차피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귀찮아서, 혹은 창피해서 말하지 않는 것과, 차별과 폭력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다. 적어도 친구라면, 상대의 냉소와 폭력이 두려워 말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에서는 학내 이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동기가 아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내 삶에서 동기가 아닌 친구들을 만들어준 커뮤니티는 학교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아니었다. 온라인 이화 이반 커뮤니티였다.

2. 이화의 이반 커뮤니티

이화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 몇몇이 레즈비언이라더라…라는 말들이 이화 이반들 사이에 전해내려온다. 유명한 동문의 이름을 따서 이반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화에도 이화 이반 모임이 있었는데 무너졌다는 말도 있었다. 80년대 학번들 혹은 90년대 초반 학번들을 통해서 전설처럼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전설과 말들 속에서 엿보이던 이화 이반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2000년 초 Daum(http://www.daum.net) 에 개설된 카페 ELC (Ewha Ladies Club) 였다.

■ [ELC] - 이화 이반 커뮤니티의 초석

ELC는 "Ewha Ladies Club"의 약자이다. 레즈비언, 이반, 퀴어라는 단어가 주는 정치성과 과격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운영자가 Ladies를 선택했다고 전해져 온다. 2000년 5월 경에 오픈한 ELC는 초기 6개월간은 게시판에 50여명이 활동했으며, 정모(정기 오프 모임), 번개(비공식 오프 모임)에는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했던 커뮤니티다. ELC의 의미와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인터넷 카페 시대의 ELC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 되기 전에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4대 통신망을 중심으로 퀴어 커뮤니티가 형성, 유지되었다. 4대 통신망은 유료 요금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써 인터넷이 보급화되기 이전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중심축이었다.

통신 시절에는 이반 커뮤니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4대 통신 모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반들은 통신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곤 했었다. 통신 퀴어 모임은 그 규모 면에서는 현재의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반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으며 2000년에 이르러 하이텔과 천리안 등의 퀴어 커뮤니티는 지난한 쇠퇴기를 겪고 있었다.

1999년 Daum에서 오픈한 Caf 라는 커뮤니티 서비스는 2000년을 넘어오며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생겨났고 ELC의 오픈도 그러한 일반적인 IT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유료 요금제 서비스였던 통신 모임보다 무료인 Daum Caf의 접근성이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과정도 통신 시절보다 훨씬 간편했다. 통신 모임 시절에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여명 정도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고, 또한 미풍양속 보호를 명분으로 음란 커뮤니티를 규제하는 통신사의 최종 검열과 승인을 거쳐야만 했다. 천리안 퀴어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동지를 규합해야했고 토론게시판에서 한바탕 찬반격론을 거쳐야만 퀴어 커뮤니티를 오픈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되자 이런 복잡하고 거추장스런 과정이 없어졌다. 이반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생성하기 시작했다.

ELC를 개설했던 운영자는 인권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반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순수 친목만을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었다.

당시 이반 커뮤니티는 통신 퀴어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하이텔과 천리안의 퀴어동은 우리 나라 동성애자 인권 운동과 뗄 수 없는 위치였다. 이런 지형도에서 친목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오픈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2. 최초의 이화 이반 커뮤니티

하이텔과 천리안 퀴어동 활동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유니텔 퀴어동에서 활동하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 커뮤니티 시절에 이화 이반을 만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분명, 이화에는 다른 남녀공학보다 여성 이반들이 많을 것이라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통신 모임에서는 이화 이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이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80년대 학번 선배는 "ELC 1주년 기념 정모 이후에 이화 이반 후배들을 많이 만나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ELC가 당시 이화 이반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ELC 이전에는 이화 이반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ELC 활동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이화에는 분명 많은 이반들이 존재했었고 존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내를 오가며 "저 사람은 이반이 아닐까" 생각했던 사람, 동아리나 학과에서 "이 친구, 이 선배는 이반 같은데…" 심증으로만 두었던 사람들을 ELC 정모(정기모임)나 번개(비공식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서로의 심증을 확인하게 된 이화 이반들은 반가워하고 놀라워했다. 학교에서 마음 놓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공강 시간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당시 ELC의 큰 매력이었다.

다른 이반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ELC에 가입하게 된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ELC만의 특징은 "이반 친구를 만들기 적합하다"는 점이었다. 속된 말로 "집적거리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학내 이반들의 친목 활동 중심 커뮤니티였으나 다른 이반 커뮤니티에서 으레 일어나던 키스게임이나 노예팅 등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연애사도 이반으로서의 삶에 중요하겠지만,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이반의 일상적인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반 친구들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ELC는 이반으로서의 경험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던 동문으로서의 경험이 맞물려 다른 이반 커뮤니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학 이반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대개의 이반들은 이반으로서의 삶과 일상 생활이 철저히 분리되기 마련이다. 직장인이라면 일반들과의 회식자리도 편하지 못하다. 일반들의 결혼 이야기, 연애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주며 일반처럼 보여야 한다.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한다는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야한다. 이반들의 커뮤니티는 그러한 긴장과 압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공간이다. 아웃팅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일반들과 어울리는 일상과 이반 커뮤니티에서의 삶은 분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내 이반 커뮤니티의 경우, 재학생들은 이반으로서의 삶과 일상 생활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내 이반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공강 시간을 보내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ELC에서 만난 친구가 동아리 공연을 한다면 ELC 회원들이 찾아가 공연을 축하해줄 수도 있었고, ELC 친구들과 함께 강의 계획표를 보며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퀴어 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퀴어 행사에 ELC 친구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도 있었다. ELC는 이화인으로서의 삶과 이반으로서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했던 최초의 이화 이반커뮤니티였다.

3. 펨-부치 이분법을 거부한 이반 커뮤니티

ELC가 번성하던 당시, 다른 이반 커뮤니티와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은 펨과 부치 이분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커뮤니티였다는 점일 것이다. ELC를 개설한 운영자는 "펨과 부치라는 단어를 토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게시물은 삭제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여성 이반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펨과 부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반들이 없진 않았지만, 커뮤니티의 규정으로 내세워 공식적인 반대를 표현했던 커뮤니티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다고 기억한다.

"펨이 옷는 모습이 그게 뭐냐" "부치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펨이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면 안 된다." "무슨 부치가 머리를 그렇게 길게 기르고 있냐"

펨이나 부치라는 단어 자체도 개개인의 성향을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일 뿐 일텐데, 어느샌가 이반 사회에서는 펨과 부치가 이반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펨과 부치라는 단어로 모든 이반들을 표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개성은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사람들 개개인의 인지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서 펨과 부치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구분이 억압으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ELC를 오픈했던 운영자

는 아마도 그러한 폭력의 시작 자체를 막고자 했던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 용어를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보이는 회원들도 있었으나 이화 이반들 대부분이 팸-부치 이분법이 주는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규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규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팸-부치라는 단어가 주는 억압을 긍정하는 입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ELC 이후의 이화 이반 커뮤니티들은 ELC처럼 강제적인 규제는 없지만, 회원들 스스로 팸-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화 이반 커뮤니티 초기 ELC에서 표면화된 팸-부치 이분법에 대한 강한 거부가 이제는 커뮤니티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다.

■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이화 내 이반 인권 운동 모임의 등장

폐막제의 조명은 화려했고 이화인의 함성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수 많은 구호와 단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여느 해와 다름 없는 깃발들 사이에서 구호도 이름도 없는 깃발 하나가 섬처럼 펄럭였다. 숨어있던 영혼들의 가슴이 벅차게 뛰기 시작했다. 114년 이화에서 레인보우 깃발이 광장으로 처음 나온 순간이었다.

2002년 대동제 폐막제는 이화 이반들에게 유래 없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영산줄다리기를 위해, '바위처럼'을 위해 운동장에 모였던 이화인들 중 그 누가 이화에 펄럭이는 레인보우 깃발을 상상했을까. 대동제 기간 내내 "Coming Out"등의 문구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 홈페이지를 무지개색 대자보로 홍보했던 변날은 이화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대동제 폐막제 직후 프리챌 변날의 커뮤니티(http://home.freechal.com/flyinggurl/) 방명록에는 수많은 관심과 격려의 글들이 올라왔었다. 졸업한 한 이반 선배는 "그날은 정말 제가 이화인 임이 자랑스러웠던 최초의 날로 기억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덕에"라는 말을 남겼다. 수 천만리 떨어진 캐나다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퀴어 퍼레이드보다 이화 운동장에서 휘날리던 레인보우 깃발 1개가 주는 감격이 더 컸던 것이다.

초기 프리챌(http://www.freechal.com)에 있던 변날의 커뮤니티 URL은 "http://home.freechal.com/flyinggurl"였다. 싸이월드(http://www.cyworld)로 커뮤니티를 옮긴 이후의 URL은 "http://flyinggurl.cyworld.com" 이다. "소녀"라는 단어를 girl로 사용하지 않고 gurl로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변날을 결성했던 멤버 한 명은 "girl 이라는 단어 속에

박힌 유약한 이미지를 gurl이라고 씀으로써 슬쩍 뒤집기"라고 설명한다. "women이라는 단어를 wimmyn이라고 새로 쓰는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변날은 2001년에 결성되어 2002년 3월 이화의 정식 자치단위로 인준 받았다. 연대 컴투게더를 비롯하여 대학 내 이반 모임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식 동아리 인준을 받고 활동하는 이반 모임은 "서울대 마음 005"에 이어 변날이 두 번째였다. 남녀공학의 이반모임에서는 게이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유일한 레즈비언 모임인 변날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변날의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회원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오프라인 스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정기 회의와 세미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진행하면서 학내 선전 작업을 비롯, 외부 단위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1. 끼리끼리 밝히는 영화제

변날은 학내에서의 독자적인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단위들과도 함께 했다. 특히 변날은 외부 단위들 중에서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와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2001년 7월 "여성이반 인권캠프"를 비롯하여 2002년 12월 "끼리끼리 밝히는 영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했다.

"끼리끼리 밝히는 영화제"의 경우, 2탄-4탄, 8탄을 이화 학생문화관과 학관에서 상영하였다. "THE WALL 2", "내가 사랑한 사람", "go fish", "하비 밀크의 시대" 등이 이 기간에 이화에서 상영된 작품이다. 이전부터 이화 학내에서 퀴어영화제가 열리기도 했었고 영화 관련 동아리나 총학이 주관하는 상영회에 퀴어물이 상영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화의 이반들이 정식 주체단위로 참가하여 학내에서 진행했던 퀴어 상영회는 "끼리끼리 밝히는 영화제"가 최초였다.

2.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2003년 5월 변날이 주최한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는 이화인들 뿐 아니라 외부인들의 관심도 컸던 행사이다. "너는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연과 전시전, 퍼포먼스, 영화 상영이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부지런히 문화제의 강의를 찾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학생문화관과 휴웃길을 오가는 이화인들이라면 변날이 준비한 동성애

혐오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었고, 이성애주의 광고를 패러디한 전시전을 구경할 수 있었다.

레즈비언 문화제는 일반 이화인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이반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상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이화인들에게 이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문화제 자료집에서는 그간 일반들이 이반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오해들을 풀어 설명하고 있었다. 호모포비아, 커밍아웃, 아웃팅, 이성애제도 등을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공간 시간 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는 글들이 많았다. 성적 소수자로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소외되곤했던 이반들이 일반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문화제 곳곳에 배여 있었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자치단위가 진행하는 행사가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문화제 자체의 내용보다 문화제를 두고 일어났던 대자보 전쟁과 문화제에 대한 테러 때문이었다. (이대 캠퍼스 달구는 레즈비언 논쟁 조선일보 2003년 5월21일)

이화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변날의 대자보 위에 붙인 그림은 대자보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변날의 문화제 슬로건이었던 "너는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질문에 평범한 이화인이 "어쩌다가?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비정상인양 말하지마"라고 답하는 한컷짜리 삽화였다. 곧 이어 삽화를 두고 이화인들이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일단, 모임의 취지와 지향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16절지 그림을 변날의 대자보 위에 붙인 "이화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내용(총연 02, i1b)이 있었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주는 폭력성을 지적하는 글(철학과 00, 우이현주 / 02 인선),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표현의 반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글(철학 99, 달군)등이 대표적인 반박 대자보였다.

"이화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어 대자보를 통해 "도덕, 법, 양심, 세시풍속, 전통문화, 선(善) 등 여러 시대, 여러 지역을 걸쳐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공통분모"들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 외에도 대자보 여백에 지나가던 이화인들이 펜으로 빼곡히 적어놓은 말들은 이화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행사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 십년, 수 백년 간 반복된 정상-비정상 논쟁이 2003년 이화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켜보던 많은 이반들은 참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에 변날 방에는 도둑이 들어 문화제 자료집과 포스터 수백 부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문화제를 지지하는 대자보들이 칼로 갈갈이 찢어지는 테러도 일어났다. 대자보 논쟁이 전쟁으로 전쟁이 테러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참담한 마음으로 대자보 전쟁을 지켜보던 이반들은 테러의 공포에 경악했다. 특히 문화제를 준비했던 변날 스탭들은 변날 방에서 신분

노출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개인 사물을 모두 가져가는 등 아웃팅의 공포 바로 앞에 서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총학 선거에서는 해마다 기독교 선본이 출마하여 전년에 비해 상승된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대동제 영산 줄다리기의 고사 문화를 반대하며 "새로운 축제 문화를 도모하는 위원회(새도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기사 참조 http://www.kmib.co.kr/html/kmview/2003/0520/091901517923111111.html) 보수 기독교 모임들의 학내 정치활동이 매년 체계화되고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이화레즈비언 문화제 테러는 이러한 기독교 모임의 정치 세력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는 변날과 끼리끼리가 공동주최했던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 대여를 학교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다. 학교 측은 "예전에 학교측에서 기독교 집회를 불허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집회를 여는 목적이 '레즈비언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변날의 활동도 허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성격의 활동은 어떠한 것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독교 집회의 성격은 정당한 인준 절차를 밟아 활동하는 자치 단위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므로 학교 측에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자치 단위 활동의 취지에 맞게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여성동성애자들의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기계적인 형평성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기 보다 기독교 단체의 항의를 두려워한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이화 학내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세력을 학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듯 하다. 변날은 이 사건을 "교육기관의 인권탄압으로 인권위 진정하였나 인권위 역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3. 학내 인권 운동의 어려움 - 일상 속에서의 투쟁

변날이 학내 선전전으로 붙이는 대자보와 플래카드는 그 어느 모임의 플래카드와 대자보보다 먼저 훼손되곤 했다. 학내 이반들에게 무료 배포했던 레인보우 뱃지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했다. 하루 만에 뜯겨나가는 대자보와 찢겨지는 플래카드 테러를 대비해 처음부터 몇 배수 더 만들어두는 것이 변날의 일상이었다. 이화인이 아닌 길가던 시민들에게 배포하던 레인보우 뱃지였다면, 변날이 아닌 다른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포스터였다면, 변날이 아닌 다른 인권단체가 진행했던 퀴어 행사였더라도 그렇게 폭력적인 테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예년에 이화에서 진행된 퀴어영화제에 즐겁게 참석했던 기억과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테러를 기억하며 떠오른 생각이었다.

공간과 주체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동성애자에 대해 무지한 일반 이화인들이라면 대학로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 인권 캠페인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재네들 좀 봐~"라는 가벼운 냉소 혹은 농담을 한마디 던질 수 는 있었겠지만, 담당자가 없는 틈을 타 캠페인의 자료집을 훔쳐가는 일도, 포스터를 찢어버리는 일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에서 레즈비언 운동 모임이 있다는 사실, 동문인 이화인이 레즈비언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레즈비언 문화제 대자보 전쟁 중에 "이대가 레즈비언 학교인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이대를 다니면 "이대생들은 모두 명품족들" "이대생들은 공부 안 하고 꾸미기만 잘 꾸민다" 등등 이대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숱하게 듣게 된다. 대부분의 이화인들은 "이대"라는 이름으로 묶여지는 사회적 편견에 민감하다. 그들에게 "너네 학교 레즈비언 학교라며?"라는 질문은 참을 수 없는 수치이다. 나는 명품족이 아닌데 이대생인 이유만으로 명품족으로 덧씌워지는 것처럼 나는 레즈비언이 아닌데 레즈비언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일반 이화인들의 위기의식이 더 커진다. 다수의 일반들인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침 기독교 모임에서 변날의 활동에 반발하고 나섰고, 레즈비언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주변인들의 시선에 거부감을 느낀 일반 이화인들은 문화제 반대를 적극 표명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보다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먹을 수 없어"라는 이기적인 심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테러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기 주변에서 실체를 갖고 가시화되는 데엔 적잖은 저항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동성애 인권 단체가 다른 장소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 변날이 주관했던 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한 이화인들의 거부감이 더욱 격렬하게 드러났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변날의 활동은 숨어있던 학내 이반들의 자존감을 더 없이 높여주기도 했지만, 피상적인 관대함 속에 묻혀있던 호모포비아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변날의 활동과 안티 세력들과의 충돌은 2000년대 초반 동성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 [조이토마토] - ELC 이후의 이화 이반 커뮤니티

ELC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ELC를 잇는 이화 이반커뮤니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4년 현재 "조이토마토(http://www.joytomato.com)"와 "무늬"가 있다. 그러나 "무늬"의 경우 Daum의 패

쇄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로 URL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3년 5월 회원가입 메일을 운영자에게 보냈던 이화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무늬는 신규 회원 가입 처리가 몇 달째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늬의 활동 내용과 특징은 외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2004년 현재는 침체기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무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1. 조이토마토 개요

조이토마토는 2002년 9월에 오픈한 이화 이반 친목 커뮤니티다. 토마토라는 채소 이름을 커뮤니티 네임으로 사용한 것은 운영자 개인의 현실인식과 취향에서 비롯되었다. 채소이면서 과일가게에 진열되는 토마토의 모호한 정체성이 이화 이반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초기 조이토마토의 구성원은 모두 ELC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오던 회원들이었다. 2003년이 되자 03학번으로 이화에 입학한 이반들이 조이토마토를 찾아왔기에 현재는 ELC 활동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4 년 3월 현재 조이토마토의 회원 수는 5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게시판과 오프라인 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는 10~15명 정도이다. 200여명 이상의 회원 수를 유지하며 게시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했던 ELC 시대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축소된 느낌이다.

조이토마토가 학내 이반 커뮤니티로써 가지는 특징은 ELC 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애인보다는 이반 친구를 사귀기에 적합한 풍토이며, 펨과 부치라는 단어에 거리를 두는 점도 여전하다. 다만, ELC 시대에 비해 안전함과 편안함의 부분에서 조이토마토가 좀 더 세밀해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반 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훨씬 수월해진 세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조이토마토에서도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2. 이반 코드가 배제된 커뮤니티 디자인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브라우저 창을 띄울 때 조마조마 하지 않아도 돼요. 조이토마토는 디자인만 봐서는 이반 사이트 티가 거의 안 나거든요."

조이토마토 오픈 직후 한 회원은 조이토마토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말했다. 조이토마토 오픈 당시 조이토마토의 로고에는 "Community for Ewha Eban"라는 문구가 작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만의 은어였던 "이반"이라는 단어가 일반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기에 부담스럽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의 로고를 유지하고 있다. 레인보우 색상이나 분홍 역삼각형 등 동성애자들의 상징이랄 수 있는 코드 대부분이 조이토마토 디자인에는 배제되어 있다. 이반 커뮤니티로의 표식을 다는 것 보다는 이반 커뮤니티를 찾을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봐야하는 이반들의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3. 이화인 인증과 이반의 개인정보 보호

이화 이반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이화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였다. "이화"에 대한 왜곡된 관심은 일반과 이반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화 이반 커뮤니티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과 테러의 위협을 막기 위해선 이화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을만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 이반 커뮤니티들은 학교 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메일로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의 정답 여부를 통해 동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졸업한지 오래된 졸업생들을 소외시킬 수 있으며, 동문이 아니더라도 친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화인들 사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화이언닷컴(http://www.ewhaian.com)의 경우는 재학생들은 학번으로 로그인하는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화이언닷컴 익명 게시판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졸업생의 경우는 학번과 학과명, 이름을 운영자에게 보내고 확인받아야 익명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반 커뮤니티는 아웃팅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학번과 학과, 실명을 입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화이언닷컴에서처럼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봤으나 졸업생들에게 적용하기는 힘든 방식이라 선택하지 않았다.

조이토마토의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창포털사이트의 DB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화인넷에 가입하여 이메일 주소를 받는 회원이라면 이화인일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이화인넷 이메일주소가 있으면 조이토마토 정회원으로 인증시켜주는 방식이다. 졸업생, 재학생의 DB가 이화인넷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이화인넷에서 하고, 조이토마토는 이화인넷의 인증결과를 참고할 뿐이다. 조이토마토는 이화 이반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화인넷 메일주소와 아이디, 닉네임 3가지 외에는 필수입력항목을 만들지 않고 있다.

■ 닫는 글

적당히 흥겨운 술자리에서 "아.. 그때 그게 언제였더라? 내가 몇학년 때인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주앉은 누군가가 "아, 그건 00년도 아닌가? 내가 0학년때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거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 자리의 누군가가 "아냐, 그건 XX년도야. 그때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확실히 기억해. 나 X학년때야" 라고 정리해 줄 것이다. 말과 말이 만나고 기억과 기억이 중첩되어 담배연기와 함께 사라졌던 지난 시절의 한 조각이 지금 이 지면 위에 다시 한번 뿌려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 글 위에 다른 누군가의 기억들이 덧붙여져 수정되고 보완되길 바란다.

변태소녀, 다시 날다

휘 린

2003년을 이화에서 보내신 이화인들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의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문화제를 통해서 변날의 존재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테구요. 그런데 2003년 1학기, 레즈비언 문화제를 대대적으로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가 싶던 변날이 문화제 이후에는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날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지해주셨던 분들은 변날이 문화제 이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고, 걱정해주시고 여러방편으로 변날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셨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학기 이후, 변날은 해소를 고민해왔으며, 2003년 2학기에 들어서서는 그 고민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결국은 해소 결정을 내리고 지난 1학기 초까지 해소를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소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변날의 내부 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힘겹게 문화제를 치뤄내고, 재충전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던 변날 구성원들은 문화제 이후 계속되던 포비아적인 여론과 기타 아웃팅 위협에서오는 실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이 지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활동가 두세명이 모든 활동을 짊어지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단지 각각의 활동가에게 큰 부담이 지워진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내에 분명 많은 수의 레즈비언(혹은 성적소수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변날의 활동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학내의 성적소수자에게마저 지지받지 못하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경우 변날 활동가들의 신변에 큰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제 이전부터도 아웃팅이나 테러 위협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제 이전에 붙인 자보나 피씨들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습니다.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기간 중에는 변날 방에 두었던 포스터와 채 배포하지 못한 자료집을 고스란히 도난당했습니다. 또 문화제 자보 위에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모임'의 배타적이고, 몰이해적인 내용을 담은 종이가 나붙어 학내에 호모포빅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대항하여 변날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보와 변날의 자보, 그리고 변날 방문 앞에서는 성유라고 하는 기름을 뿌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모든 교회사람들이 모여서 새벽기도회를 열었으며, 변날 방에 무단침입하여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 사진들은 후에 학교 행정기관이나 총장실로 보내졌습니다. 또 대동제 기간에는 레즈비언 활동을 반대하는

목적을 지닌 기도회가 계획되었으나, 학교 측의 불허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테러들로 극도의 위협을 느낀 변날 활동가들은 다음학기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학 중 사업으로 변날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모임 '끼리끼리' 와 '여성성소수자 자긍심 갖기 강좌 프로그램'을 공동주최하고자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강의실을 빌리고자 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불허 이유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으나, 포스터를 다시 찍고, 날짜를 연기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적합한 절차를 밟은 후에도 여전히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이 내세운 거절 사유는 이전에 레즈비언 활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불허했으니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레즈비언을 위한 행사 역시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날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상대로 '성적지향에 의한 교육기관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이 진정은 후에 학교 측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신들과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 타 집단을 탄압할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여성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동일시하여 형평성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교육이념에 몇 번이고 '여성교육'을 넣어가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마지않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변날방의 사진과 미션 스쿨의 입지를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하는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날은 본격적으로 해소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레즈비언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변날이 해나가야 할 다른 사업들을 학내에서 치룰 수 있겠는가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부터는 변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소에 관한 논의가 오갔으며, 해소를 위한 준비를 차차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총학생회 선거 기간을 공략하여 학내 레즈비언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그림자 선본 '포비아 습격단'이 사인 선본의 후보가 아웃팅 가해 경험이 있음을 자보를 통해 이화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샤인 선본은 '레즈비언이니 사진 찍지 말라' 고 말한 한 레즈비언의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내 성소수자 사안에 절대적으로 무지함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포비아적 태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끝갈 데 없는 위협을 느낀 변날 활동가들은 해소 결정을 공고히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소를 결정하고, 변날의 마지막 사업으로 이제까지 묻혀왔던 학내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를 자료로 남겨놓고자 그간의 이화 내 레즈비언 역사를 모두 모아 자료집을 내는 과정에서 해소 결정을 뒤집고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정상 선뜻 변날 활동을 함께 해나가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지지해온 많은 레즈비언 이화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지금의 변날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을 계속해나가고자 모였습니다. 그간의 변날 활동을 통해서 학내 성적소수자 문제가 겨우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로 인해서 포비아들도 가시화 되었으니, 변날이 해소한다면, 이화는 영영 성적소수자들에게 죽은 공간이 되어버리리라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해소 결정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날은 2004년 1학기를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로 보냈습니다. 2004년 10월 그 첫 발을 두번째 레즈비언 문화제로 뗄까 합니다.

이화에서 레즈비언 인권운동하기.

휘 린

커밍아웃하지 않은 변날 활동가

"나는 커밍아웃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인권 운동하는 레즈비언 활동가입니다."
이 문장을 세 번쯤 읽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제가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무엇' 입니다.
저는 세 번을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을 찍으며 되뇌었습니다.
아마 이만큼만 읽고 이미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라며 얘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언혀 감을 못잡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커밍아웃하지 않은 레즈비언'이고, 동시에 '대학 내'에서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10]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마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구사할 지경[11]이니 말이죠-_-;(바로 그렇기에, 불안한 마음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갖게된 이후로 이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나는 레즈비언이로소이다." 라고 저를 드러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커밍아웃할 계획도 없어요. 이성애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다분하죠.(이 얘기 정말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어요. 설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고립되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상상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일 보내주세요.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_-;) 커밍아웃하지 않은 레즈비언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활동가'라는 세 글자가 더 붙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자칭 쿠울-한 사람들이며, 운동을 하는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몇몇 동성애자마저도, 커밍아웃 하지 않고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느냐, 동성애자로서 비겁한 처사다.류의 말을 아

10) 영어 'come out of closet'에서 유래한 용어로, 직역하면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
동성애자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동성애자 집단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커밍아웃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직장 · 학교 또는 일반 사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커밍아웃은 일반적인 의미에 국한 시킨 커밍아웃이다.

11) 지난 8월 29일 노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공연된 한나라당의 풍자극을 청와대 부대변인이 비판하면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커밍아웃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

무 거리낌없이 하더군요. 한 명의 동성애자가 희생되어서 백 명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깟 한 명 정도 희생시키자 이런 논리인걸까요. 제가 활동하면서 변날은 아웃팅 위협때문에.../ 변날 활동가들은 커밍아웃을 안했기에.../ 저기.. 저희는 그러면 좀 위험하거든요../ 변날 활동가들은 아웃팅 우려가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렵사리 말을 꺼내면서, '운동한다면서 그 정도도..' 라는 시선을 느낀다면[12] , 그건 단지 제 피해망상일까요..?(아아,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 의식도 가질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마디 : 커밍아웃은 결코 동성애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해야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것은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다 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 그리고 저는 학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사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개중 진보적이라는 대학공간이니 말입니다. 외부단체 활동가들이 부딪히는 갖가지 어려움을 보면,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다던가, 혹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저를 품어준다는 느낌마저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학이라고 뭐 다른가요? 작년 5월에 있었던 문화제 기간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며, 그 이후에 줄줄이 벌어진 사건들은 진보네, 진리의 상아탑이네 하는 허울좋은 가면을 가진 이 공간이 얼마나 극심한 호모포비아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어찌보면 대학 내 활동가들은 오히려 좁은 학내 공간 안에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위험하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만약 활동을 하다가(포스터를 붙이다가, 자보를 붙이다가 etc) 운 나쁘게도 과 친구들에게 아웃팅이라도 당했다고 가정해봐요.(가정하는 것 자체가 무섭지만) 과 친구들은 모두 절 외면하겠죠, 원래 남 얘기처럼 재밌는 게 없다고 제 얘기는 순식간에 흘러흘러 교수님들 귀에까지 들어갈게 뻔해요. 그럼 포비아가 없을 리 만무한 교수님들이나 조교언니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in EWHA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학이란 공간은 다소 숨통이 트여있는 곳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저는 이 공간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다행스러워서 대학을 떠나고 싶지 않군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과만 바꿔가면서 평생 학교만 다니리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화'라는 공간은 특수한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화에는 재수없는 꼴통마초들도 없고, '오빠'들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설사 이 공간에서 아웃팅이 된다 할지언정, 적어도 물리적인 성폭력의 위험에서는 안전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작게나마 레즈

12) 실제로 인터뷰 요청에 대해 변날 활동가들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면대면 인터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진정 권리를 찾고 싶다면 좀 더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메일을 받은 경우가 있다.

비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이성교제'가 담장 밖 세상이나, 여타 남녀공학보다는 좀 덜 강요되죠.

게다가 이화여대가 소위 여성학의 메카 아닙니까. 그나마 여성학에서는 레즈비언의 ㄹ자 정도는 간혹 나오기도 하고, (포비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극심한 편견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죠.

하지만, 정말 이화라는 공간이 성적소수자들이 날아보자하고 마음만 먹으면 금새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공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글쎄에' 입니다.

여자들만 모여있기에, 그런만큼 그 안에서 연애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커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감정적으로나마 동성애에 동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구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정말 많은 레즈비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무화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깐요.

여성학 안에서 레즈비언은 단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해해 이해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뒤통수 치는게 더 무서운 법이죠.

사실 이화 안에서나마 날아보려는 성적소수자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독교' 입니다. 이화여대는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그런지 학내 기독교 동아리도 많고,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분들도 교인이신 분이 많다고 하네요. 작년 5월경 변날이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를 치룬 이후, 이화를 달궜던 논쟁들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 줄기차게 이어진 대변날 테러들도, 이화의 졸업생 분들의 막강 파워에 의해 변날이 공동주최했던 행사 중 하나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도, 선거기간 동안 학내 성적소수자 문제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준 모 선본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린 후 신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대를 구원해달라는 기도회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차 서울권역의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저어 멀리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마저 이화를 위해 기도드린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화여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아 나날이 번창하리라고 기대됩니다.

 # 하지만 여지는 있다.

'글쎄' 라는 대답은 초낙관적인 자세로 들여다본다면, 일말의 희망을 건져올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태껏 이화에서 레즈비언 인권운동하는게 이렇게 어렵다하고 투덜대더니 이제와서 또 무슨 소리냐구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화' 라는 공간은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뭘 믿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냐구요? 이렇게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 (꼭 말하고픈) 일상적 어려움 하나.

이 글을 편집하고 있는 동안에도, 인터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보를 붙이거나(변날은 정말 이슈메이커인가봅니다;), 어떤 행사를 치루거나, 혹은 레포트철이 되면 메일, 전화가 쏟아집니다.(거짓말 아네요.) 더하여 직접 방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 근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날 방 문에는 '방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꼭 해주세요. 인터뷰나 기타 용건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메일로 먼저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팻말이 상냥히도 붙어있답니다. 사방에서 위협이 스물스물 기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근래에는 변날 메일로 먼저 연락해주십사하는 문구마저 방문에 써붙였음에도 간혹 벌컥벌컥 문을 열어제끼시는 분이 있어서 그 때마다 십 년씩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동성애자를 주제로 레포트, 혹은 기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적소수자의 입장을 딱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메일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해주세요.

사실은 타 단체-어떤 단체든-를 방문하는 데에 앞서 미리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문화제 기간에는 Y뉴스 기자라는 분이 불쑥 방에 오셔서는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한 적도 있었죠. 얼굴이 고스란히 팔리는 데 대한 부담감도 컸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학내 단체라고 무시하는 건가 하는 불쾌감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방문 앞에서 하는 말-아무리 소근소근 말해도-방에 앉아있으면 다아 들린답니다.(문화관이 방음이 잘 안되죠.)

미래

But I am a Lesbian!

[청탁]

30대 레즈비언의 삶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써니

내 얘기를 써달라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시간이라도 많이 줘야지.. 난 글 쓰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리 드라마틱한 과거도 화려한 현재도 없어서 재미없을 테지만 그래도 평범한 나를 얘기하려한다.

어쨌든 나를 소개하자면 37살이 된 레즈비언이다. 6살 아래인 애인이랑 6년 정도 같이 살고 있고 만난지는 6년 6개월이 되어간다. 지금 애인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가 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반찬 만들기(심지어 김치담기까지...)도 하면서 정말 전쟁처럼 지내고 있다. 한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고 있다.

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통신대를 다니고 있다. 이제 3학년이니까 1년(3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다. 물론 성적이 좋아야 되고 논문이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장학금을 놓친 적은 없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학생이 아닌가!!

사실 방송대도 영문학과를 다니길 원하는 애인이 하도 같이 다니자고 간청, 요청에 협박까지 하는 통에 다니게 된 것이다. 영어는 죽어도 싫다고 차라리 국어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타협안으로 애인은 영문과 나는 국문과를 다니게 되었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니.. 하지만 영어가 싫은 것은 지금도 어쩔 수가 없다. 2학년때 유일하게 있는 대학영어란 과목 때문에 기말고사 때 반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부은 결과 다행히 낙제는 면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행이라고 여긴다.

내 나이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많이 물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다. 30대 후반이면 아마도 포기 내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여기고 그리 꼬치꼬치는 물어보지 않는다. 어쩌면 20대 후반에 더 많이 심문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나이 어린 애들이 가끔 아줌마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리 기분 나쁘지는 않다. 뭐..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다가 아줌마 나이니까.. 그리고 애인이 "언니 아줌마 맞잖아. 이미 나랑 결혼했으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여긴다. 어쩌면 그 말이 더 기분이 좋아서 아줌마라는 말쯤은 신경쓰이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위 아무에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 가끔 대화에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남들이 볼 때는 30대 후반이나 되어서 결혼도 안하고 혼자 또는 친구랑 사는

좀 불쌍한 여자쯤으로 볼 테니까.

어머니는 내게 결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난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선을 보게 한다거나 결혼하라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겐 전혀 없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때 가끔 "그래도 결혼하면 내 걱정이 덜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시다. 다만, "혼자 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혼자(?)인 딸을 걱정하신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어머니는 우리 관계를 모르신다. 다만 까다롭고 내성적인 딸이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의 여자와 같이 1, 2년 산 것도 아니고 6년 정도 같이 살고 있으니 그저 딸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 여기신다. 어머니랑 애인은 좋아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해서 내가 싫어하는 곱창을 샛이서 같이 먹으러 가기도 했다. "너거들 평생 그리 살끼가.. 머 그것도 괜찮네. 하나는 얌전하고 하나는 털털하니.." 그리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80% 정도는 우리사이를 인정한 셈이 되는 게 아닐까... 그것도 이제까지 별다른 말썽 없이 잘 살아온 딸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싶다. 자기자랑이 됐나?... 하지만 애인은 아직 30대 초반이니 고비는 여전히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별 말씀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라고 애인의 부모님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고 큰 소리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다. 그 이전의 나란 그저 어둠뿐이어서 행복의 감정 따위 느껴본 일이 없다. 어릴 때 사랑 내지는 결혼이 제 2의 인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도 바꿔놓을 수가 있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웃음을 웃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편 등은 견뎌낼 수 있게 만든다.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카드빚을 지거나 사채 때문에 도망 다니는 일 없고 전세지만 내가 살 곳이 있고 쥐꼬리만한 아르바이트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돈이 많이 있다면 나도 호주로 가서 관광비자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애인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고 맛있는 밥도 해줄 수 있으련만 그럴 수 없으니 좀 서운한 것뿐이다.

나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편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 꼼꼼하니 계획을 잘 세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년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몇 년 단위로 뭘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 예전에 직장을 그만둘 때도 다음에 뭘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건 세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다보면 늘 길은 나왔다.

애인은 가르치는 것이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다고 한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컴퓨터를 가르쳤고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분야를 달리해서 가르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다. 물론 더 큰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지만,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 학원을 하나 차려서 돈 관리는 내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내가 바라는 조그만 꿈은 마당 조금 넓은 집에 개와 고양이 각각 두 마리씩을 키우고 싶은 것이다. 한 마리씩은 너무 외로우니까. 가끔 애인과 손잡고 개를 데리고 같이 산책을 다닐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커플이라는 한계는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의료보험에도 각종 보험이나 서류에도 우리는 배우자라는 명칭은 가지지 못한다. 아마도 영원히 동거인 내지는 친구라는 명칭만 있을 것이다. 우리끼리는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끼리나 이반사이에서만 통용될 뿐이다. 얼마 전에 본 외국 퀴어드라마에서 레즈비언커플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한명은 친모지만 다른 한명은 양육권자가 아니어서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하는 장면을 보았다. 만약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애태워야만 한다.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그렇지만 이전 선배들의 노력으로 동성애자 모임이 생겨났듯이, 조그만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우리같은 커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인권센터에 몸 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비록 운영진들처럼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외국드라마에 나오는 레즈비언커플들처럼 아이를 가지거나 하는 계획도 없다. 아이는 우리 둘 다 원하는 일이 아니다. 커밍아웃도 어려운 현실에서 레즈비언커플의 아이를 어찌 키울 수 있을까. 나는 나같은 아이를 키울 생각도 전혀 없다. 아이가 소원해진 일반부부들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끈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반커플들은 그 연결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 둘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7년째 사귀면서 큰 마찰이 없었던 것도 어쩌면 우리 커플의 행운이 아닐까.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애인도 나에 대해 불만인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려고 했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다. 어쩌면 익숙해진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는 1년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가끔씩은 너무 외롭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면 늘 내게 팔베

개를 해주던 게 생각나서 가슴 한 켠이 싸해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다. 명절이나 생신이 되면 '우리'가 아니고 '딸' 과 '친한 언니' 내지는 '친한 동생' 이 선물을 해야 하는 일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나나 애인이나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커밍아웃해서 좋을 일은 없다는 결론 때문이다. 다만, 애인의 동생은 우리 사이를 알고 있다. 맨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동생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일 따위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 조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행복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가족'

휘 린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친구들과 사는 것이 꿈이었다. 학교 끝나고 재잘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년지기 우정 우리들은 "우리 절대 결혼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넷이 같이 살자. 너랑 너는 치우는 거 좋아하니깐 청소하고, 나랑 애는 손재주가 좋으니깐 기계 손보고 그런거 하는거야." 하고 깔깔대며 머리를 맞대던 기억이 있다. 좀 더 자라서 또래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각종 순정만화며, 누구와 누가 사랑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트렌디 드라마가 점심시간의 화제로 떠올랐던, 내가 이성애자라고 믿고 있던 그 시절에도, 남자와 연애하는 그림은 가아안혹 그려봤을지언정, 남자와 한 집에서 살면서 밥이나 해주고 있는 그림은 도저어히 그려낼 수가 없었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라는 뻔하디 뻔한 구절이, 내 머릿속을 단단히 붙들어 매던 시절이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차츰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겨울 헤어진) 3년 가까이 사귄 애인과 함께 하는 동안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스물 남짓했던 나이치고는 꽤나 소소한 부분까지 생각했고, 지난 겨울 우리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전까지는 썩 희망적인 미래였다. 여튼(길게 말하지말자.) 한순간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린 나는, 진실한 사랑은 영원불변하고, 세상에 둘만 있어도 좋아. 단둘이 아끼며 살아가네- 하는 보이밴드의 노래가사 같은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_ -;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는 나의 가족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같이 사는 것! 즉, 좀 더 축약해서 말하자면 '공동체 가족'이랄까. 나의 가족이 되어줄 친구들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 친구이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7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매우 사랑하는 나는 이성애자 친구가 애를 낳으면 7살까지는 애지중지 길러줄 의향도 있다. 뭐 하지만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레즈비언 친구들과 함께 살면 참 좋겠지. 물론물론, 각각의 애인을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벌써 집 지었다;) 북적북적 여럿이 즐겁게 사는게 좋으니깐. 무엇보다도 동성 간 결혼이 불가능한 작금의 현실에서, 법 안에서는 절대 보호받지 못하니, 여럿이 뭉쳐서 우리끼리 보호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다. 뭐 혹시 세상이 확확 변해서 나이 좀 먹고 보니 좀 숨쉬고 살만한 세상이 되면, 나의 가족, 우리 가족이 성공적인 가족 모델로 유명세를 탈 지도 모르는 일

이지.

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 : 그게 어떻게 가족이냐? 라고 태클기는 당신, 조선일보 끊으시라-ㅁ -!)

먼훗날의 나의 딸에게

나 루

지난 추석은 정말 힘들었어.
원래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데 명절이라 집에 내려갔지. 저녁에 식구 넷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래, 너는 연애 안 하냐?" 하더라구. "연애는 무슨 연애.. 내가 사람 만날 일이나 있나"했더니 동생이 대뜸 "맞아, 언니는 남자 안 만나잖아. 원래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남자는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는 거야.
엄마랑 함께 있는데 연애나 결혼 얘기가 나오면 동생은 늘 저런 식으로 말을 했어. 나는 엄마가 대충 눈치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고. 하지만 아빠까지 있는 자리에서 동생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지.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다니? 그럼 여자는 좋아한다는 말이냐? 여자만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술이 오르신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웬 여자?" 이렇게 말했고 허허 웃어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동생 왈, "아마 그럴 껄? 내가 볼 때 언니 친구들도 다 그런 것 같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 순간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내가 변태냐?"였어. 사실 난 동성애 혐오증이 심한 편인가 봐. 우울해지면 늘 내가 별로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드는데, 막상 가족들 앞에서 저렇게 대꾸를 하고 나니 가슴이 몹시 아프더라...

엄마는 "여자들끼리 사귀면 사랑할 정도까지 사귀나 뭐... 그냥 깊은 우정인 거지." 하더라. 엄마가 실제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겠지. 엄마도 동생 때문에 당황하신 것 같았구.
아빠는 "왜...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 여자가 여자 좋아하면 변태인가? 서로 외롭고 쓸쓸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라고 말했어.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지.

작은아버지가 tv에 성 소수자 연예인이 나오면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고 욕을 하면서 다른 채널로 돌리는 반면,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어. 물론 가족들과 술김에 오간 대화 중에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 한 번 한 것뿐이겠지만, 아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나의 정체성을 아빠도 사실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고민이 들었어.

결국 "내가 그런 걸 tv에서 하두 많이 봐서 그런가..."하는 아빠의 멘트로 그 대화는 마무리 되었지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뻐저리게 했지. 굉장히 끔찍했어..

딸~
2004년 현재 21살 엄마의 추석풍경은 이랬단다.
이번 명절을 겪으며 영영 널 만날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먼훗날에도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 엄마는 항상 너를 만날 생각에 힘을 내고 기운차려 살고 있는데 말이야.

아가를 갖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커뮤니티도 만들고, 고민이나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공유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구나. 동성애자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외국에 나가 동성 파트너와 결혼해서 아가를 직접 낳거나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의 어떤 산부인과에 가서 돈을 많이 내면 아가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거기 가서 몰래 낳아다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엄마는 어떻냐구? 엄마는 엄마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이후 한 번도 아가를 가져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배 아픈 거 참아가며 아가 낳을 용기도 없고, 속 썩이는 너를 이리저리 달래고 볶아가며 열심히 잘 키울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엄마에게 원래 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엄마는 달마다 오는 생리통만으로도 짜증이 났단다. 자궁은 내 몸 안에 달린 쓸모 없는 기관일 뿐이었지. 지금도 엄마는 자신 없어. 그렇지만은 너를 만나고 싶어.
엄마가 바라는 미래는 아무 것도 아니야. 다만 너를 만나고 싶은 거야. 처음 걸음을 떼고 엄마들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 너를,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배우고 와서 나에게 동성애는 이런 거지? 하고 오목조목 설명해주는 너를, 엄마들의 기념일에 사포의 시를 읊어주는 너를,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져 행복한 눈빛을 짓는 너를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커밍아웃한 친한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내가 키울게, 빨리 아가 낳아~"라고 말할 때, 그렇게 또 한 명의 엄마로서, 이모로서 너를 만날 기대에 설레면서도 가슴 한 구석은 참 아프단다.
나는 그렇게 꿈꾸는데,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해줄까. 나는 훗날에도 레즈비언이고, 나의 연인은 여자일 거고, 나의 친구들도 대부분 레즈비언인 여성일 텐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너는 엄마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를 사회에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딸아, 그래도 엄마는 믿고 있어. 엄마와 엄마의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행복할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서의 레즈비언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을.

그 건,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모성의 이름이 아니겠지. 그 건 아마 자매애라는 이름도 아닐 거야. 굳이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 성 소수자라는 말은 사라질지도 몰라. 그냥 단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

딸~ 그때를 위해 기다려줄래?
먼훗날 너와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날을 꿈꿀게.

언젠가 학내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따서 구성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정확하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미 가족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나는 그 아이를 보며 행복하다. 언젠가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살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모여서 살지 않더라도 이미 가족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내게 가족은 그런 의미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구성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언젠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진 꿈: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다[13]

마 틸 다

깨진 거울로는 얼굴을 비쳐봐도 결국, 보이는 건 갈라진 얼굴뿐이다. 웃어도 찡그러진 표정이고 울상을 지으면 비웃는 듯 보이는. 그녀와 나는 각각의 집[14]에서 나와 출가라는 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귀는 내내 항상 밤 인사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기에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살림을 합쳐서' 살기로 한 것이다. 그녀와 나,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학교 근처 방 두 칸[15] 있는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과 동거를 했던 혹은 동거 중인 주변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내거나 어릴 적 엄마 손 잡고 갔다가 손 놓쳐서 미아가 될 뻔했던 큰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이불이며 숟가락이며 그릇이며 집기들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마치 결혼[16]하는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녀와 나는 학교에서 만났고 그녀가 선배, 나는 그녀의 귀여운 후배였을 뿐이었는데 어느 새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이쯤에서 한 번 웃자, 그녀는 정말 너무 예쁘고 좋은 사람이다. 그녀는 이번 졸업학기를 끝내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것이고 나는 4학년 마지막 학년을 보내야 한다. 그녀와 내가 동거를 하면서 그녀가 생활비와 우리의 적금을 부을 돈을 벌기로 했고, 내가 졸업하고 몇 년간 같이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그 후에 내가 돈을 벌면서 그녀는 하고싶어했던 대학원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사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했고 안 될 이유도 방해물도 없게 보였다. 이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13) 소설이기에는 실현 가능성 농후한, 미래의 수필로 읽어보면 재미있으면서도 순간 우울하기도 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존재, 그녀들의 사실혼 관계, 동거의 삶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되는 한국 일반 사회의 행보가 안타까울 뿐이다. 어허, 통재라!

14)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여성이 소위 알려진 결혼 즉 이성과의 결혼 전에 출가를 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 '집'이란 통칭 결혼 전의 그녀들을 묶어놓고 놓아주지 않는 '집'이라는 그들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집'을 둘러싼 무형의 에너지까지 포함한다.

15)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과 함께 살 때 보통 방 한 칸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치고라도 중요한 건 동성애자 커플인 경우 아웃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출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로 열 몇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가 아닌 이상 쉽게 말해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면 '집'의 구성원 특히 부모님의 손길은 여전히 거치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닌 이상 각각의 구역이 정해져야 한다.

16) 법적 용어로 혼인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말해서 법적으로 혼인과 사회적으로 결혼의 의미에서 행위자들은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다. 위 글에 등장하는 그녀와 나는, 모두 여성이므로 법적·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사실혼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중략)[17]

여자와 남자가 동거를 하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다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부부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유형의 혜택이 있는 반면,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는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였다.

기사를 읽다가, 그녀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못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우리의 계획들은 정도가 지나치게 착했다. 여자 둘이 같이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짧은 기사, 또박또박 타이프 된, 검은 글자들로 이뤄진 또 다른 그녀들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했다. 왜 갑자기 그리 감상에 젖게 된 것이냐고 물어도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녀와 나는 우리 각각의 존재 자체도 순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 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넸다.

그녀: <the wall 2>[18] 할머니 에피소드 말야, 그게 생각이 난다.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우울한 것 같아, 옛 같은 건 그 할머니들이 살았던 시공간과 우리의 시공간이 다르지만, 하나도 다른 것 같지가 않아. 흐으음-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은 걸까?
나: 아니, 나도 겁이 나.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마음만 단단히 먹어서는 안될 것 같아. 이 웃기지도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그녀와 나는, 우리는 결국 당분간 동거 계획을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쉬운 일이지만 오히려 잘 된 일일지도 모른다. 어설프게 살림을 합쳤다가 불공평한 바깥 세상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영악스럽게 준비[19]를 철저히 하고, 매일매일 웃으며 같이 사는 것이 낫겠다 싶다. 지금 당장의 꿈은 깨졌지만 새 꿈을 꾸면 고만인 것을, 그녀와 나는 알고 있으니.

17)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4년 8월 2일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법원' 기사 인용 및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일다 싸이트(www.ildaro.com) 참고하시라.

18) <the wall 2>는 미국의 시대별 레즈비언의 삶을 보여준 영화이다.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가게에 거의 없다. 사실 레즈비언에 관한 영화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동네 저 동네 최소한 5군데 이상의 비디오 가게로 발품을 팔며 다녀야 할 것이며 혹은 인터넷의 모싸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볼 수도 있다.

19) 여기에서 준비란, 뭘자인 나도 잘 모르겠다. 소위 백만 명의 사람들(양쪽 가족들, 친구들)이 팔 걷고 거드는 이성애자 커플의 '살림 합침'과는 출발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외풀이 섬과 같은 신세인 '그녀와 나'이 두 여자들은 준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빱

2004년 여름,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케이블 방송으로 송출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이 중계되었다. 물론 수입된 미국 드라마 속 허구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은 신문 지상 어디에도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주된 등장인물인 이른바 게이 월드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의 유연성인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인 것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방송중단 요청보다는 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 판타스틱한 드라마 동네와 한국의 성적 소수자 동네와는 엄연히 단절의 바다가 흐르고 있다. '퀴어 애즈 포크'의 주인공들이 자신이 게이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오히려 이성애자혐오(헤테로포비아)의 발언을 내뱉을 때, 한국의 성적 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의 여파로 직장에서 해직당하거나 가족의 질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편견과 무지' 혹은,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중요시여긴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한국 사회의 유별난 성적 폐쇄성'에서 나왔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그러나 이 원인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사실, 성적 소수자 차별이 아니더라도 편견과 무지가 원인이 되지 않는 차별은 거의 없으며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체제 전복이 아닌 한 근본적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20]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중에서도 동성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인권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을 유보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동성애 관련 사항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인터넷, 정기간행물, 만화, 영화까지 검열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에 대해 알 권리'에 대한 박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역시 청보법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금칙어 조항에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등의 단어를 넣어 청소년이 아닌 성인 성적 소수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21]

20) 이 글은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기획한 한채윤 집필의 '성적 소수자 차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해소방안'라는 우수한 논문에 기댄바가 크다.

21) 본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가 레즈비언 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모 대형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문화제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변태'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금칙어로 걸려 개설하지 못하였다. 담당자에게 들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듯하다.

자신에 대해 알 권리를 갖지 못해 피해를 받은 가장 큰 희생자는 아마 '이성과 결혼한 기혼 동성애자'일 것이다. 단 한번의 의심도 없이 이성애자로써 교육받은 이 기혼 동성애자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적 소수자가 성공적으로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한다 해도 삶을 영위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무시는 자신을 무엇보다 법제상의 제한이 확실히 명시되어 차별하고 있으므로 그 수정이 시급하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무시는 이성애주의의 결정판이며, 상징적으로 앞서의 차별들이 합리화되고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성애자 부부와 다름없이 한 파트너와 수십년 간 살아온 동성애 커플도 대외적으로는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미혼자이기 때문에 회사 내 승진이나 주택자금 대출, 세금감면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통의 직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족수당, 결혼기념휴가, 본인 및 배우자 경조금, 의료 보험 적용, 출산휴가,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등은 꿈꿀 수조차 없다. 심지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동성애자 커플들은 이성애 커플들이 받는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성애 커플들 중 한쪽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배우자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경우엔 연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성애자 커플은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혼인할 권리와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 시험관 아기를 통해 임신할 권리가 없으며, 파트너를 보호자로 명해, 위급시 대리인이 될 자격이나 유산상속권도 없으며, 외국인 파트너의 경우 연 국적 변경 혜택을 받을 권리도 없다. 동성애자가 결혼이나 입양들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없음은 상기한 불이익 외에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어딘가 불완전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가장 간단하고 상징적인 해소방법은 혼인법에 '동성에게도 적용된다'는 단 한줄을 삽입시킴으로써 이성애자 커플이 받는 것과 똑같은 법적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평등함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의 문제점-동거부부,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나 소년소녀가장 가구, 독신 가구와 무자녀 가구, 공동체 가구와 미혼모 가구나 재혼이나 입양 가정들도 모두 혈연중심, 남성 중심, 부모 중심의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함이나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을 그대로 두는 것이므로 찬성할 만한 법안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프랑스의 팍스법(PACS/Pacte civile de solidarit, 시민연대협약)이 각광받고 있다. 3년 이상 동거생활을 했다면 이상간이든 동성간이든 혹은 애정관계가 아닌 형제나 친구관계이더라도 간단히 약식 재판소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가족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정은 이전의 이성애자에게 부여되는 파트너십의 성격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혼(結婚.Marriage)이 아니라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register)' 또는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특별법[22]을 제정하는 형식이고, 또한 입양과 인공수정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2000년 11월에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입양까지 허용함으로써 가장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에 다가섰다고 평가받지만 네덜란드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아직도 이성애자와 완전히 평등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혼과 유사한 권리가 아니라 결혼을 '선택할 권리'이다. 실상 결혼은 이성애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제도적 측면이 강하고 굳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결혼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실익만을 따진다면 동성애 커플에게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파트너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보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동성 결혼이 단순히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택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혼을 할 것인지, 동거를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것은 다 줄테니 '결혼'이란 단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서구의 해법은 결혼과 가족 제도에 대한 다양성 모색과 논의의 확대를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면에서는 배울 만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간접 차별의 시각에서 볼 때,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해도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열등하다는 편견과 통념은 여전히 남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2) 파트너십 등록법(a law registered partnership)은 유럽의 경우 동성 커플에게 일부 특별한 예외와 함께 혼인한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 혜택과 의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성 파트너십법을 통과시킨 국가로는, 1989년 덴마크(1999년 개정), 1996년 그린란드(1999년개정), 1993년 노르웨이(2000년, 20001년 개정), 1994년 스웨덴(1995년에 발효), 1996년 아일랜드, 1997년 네덜란드(1998년 발효), 1999년 프랑스 PaCS법, 2001년 독일, 2001년 포르투갈, 2002년 핀란드와 2003년 벨기에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대만이 이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다.

▶ 레즈비언 인권운동 4개 단체 연대체 (가)

1.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는 여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들의 인권 운동 모임입니다. 끼리끼리는 1994년 11월 단체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여성 성소수자들 간의 수평적 공동체 형성과,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해온 이성애 중심주의에 문제 제기하는 실천적 인권 운동을 활동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뿌리깊은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여러 가지 고정된 성역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가 조장하고 재생산하는 동성애 혐오적인 모든 관습, 문화, 제도, 체계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 성소수자들의 언어와 경험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것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는 여성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향으로 삼는 여러 운동 단위들과 연대하여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성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쉼 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www.kirikiri.org
이메일 주소 kiri9411@chollian.net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816호 끼리끼리 (우편번호 110-618)
전화 번호 (02) 703-3542
팩스 번호 (02) 703-3543
후원 계좌
국민:498101-01-049888 조흥:333-04-691038 우리:784-036387-02-101 (예금주: 끼리끼리)

업무 시간 (간사 상근 시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필요할 때는 연장 근무합니다.)

상담 시간
전화 상담: 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면접 상담: 월-금 12부터 저녁 7시까지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단체 업무 소개
[상담업무]
전화 상담 (02) 703-3542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상담 www.kirikiri.org
이메일 상담 healingpower@hanmail.net

각종 문의는, kiri9411@chollian.net으로 접수합니다.

[사건 지원 업무]
여성 단체들과 각 지역 경찰 등과의 연계망 형성을 통해, 여성성소수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사건 발생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웃팅 협박을 매개로 한 각종 폭력 관련 사건을 지원합니다.
긴급 전화 (02) 703-3542

[회원 프로그램]
신입 회원 세미나
인생곡선 그리기, 여성 성소수자 인권 운동사, 反(반)성폭력 등의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끼리도 재미있다
격월 간 회원 친목 프로그램

소모임
레즈비언 공부 소모임, 30-40 대 모임 그루터기. 그 외 다양한 성격의 소모임 결성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총회 (끼리 마실)
단체 운영과 관련한 제반 논의(재정보고, 활동보고, 활동계획 논의)들을 나누는 자리.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식지 제작
재정 보고와 활동 보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월 1회 발간 소식지와, 끼리끼리 활동의 다양한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연 2회 발간 특집 소식지가 있습니다. 회원 무료 배포는 물론이고, 각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여성전용업소 등에도 역시 무료 배포 합니다.

그 외에, 시기별로 회원 대상 기획 강좌, 활동가 캠프 등의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기획 사업]
상담사례자료집 제작
그간에 끼리끼리가 해 온 상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만든 사례집입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민 등 성소수자들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에 대한 도움의 말을 함께 담았습니다. 사례집은 내용을 보기 쉽게 다듬고 정리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상반기에 제작되었습니다. 권당 5000원에 권당 우송료 2000원으로 원하는 분들께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웃팅 방지 매뉴얼 제작
아웃팅은 성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을 폭로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매뉴얼은 아웃팅 피해 사례들, 아웃팅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매뉴얼입니다. 끼리끼리가 이와 같은 매뉴얼을 발간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은 폭력이고 범죄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또한 성소수자 개개인이 아웃팅을 스스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호모포비아 어록 제작
드러내놓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반응을 보이는 경우 외에도 호모포비아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호모포비아는 이유없이 동성애자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증오하며 심지어 공포스럽게까지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의 지독한 편견입니다. 호모포비아 어록은 끼리끼리가 모은 일상 속의 호모포비아적 상황들과 그런 상황들을 왜 호모포비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반성폭력 캠페인
끼리끼리는 현재,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니아까>, <이화여대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등과 함께 여성 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네트워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신입회원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반성폭력을 필수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전용업소들을 중심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성폭력 신고 전화 (02-703-3542)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시민사회 단체, 여성 단체, 학생 그룹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란 그릇된 것이므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활동가들 조차도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끼리끼리는 이 강좌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 한국동성애자연합,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 등에 결합하여 활발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저희 부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는...

1990년이래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을 결성하고, 성적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그로인해 사회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근거 없는 편견과 사회 잘못된 관념으로 동성애자들은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진지하게 동성애자들의 삶을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7년여동안 영남지역에 많은 동성애자 모임이 있었으나 인권운동의 틀과 인식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최초로 인권단체를 표방했던 '안전지대'가 5년여동안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활동가의 아웃팅 위험 감수, 재정의 어려움과 무엇보다 초대회장의 반인권적인 행각 그리고 회원들의 성폭력 인식 부족으로 인권단체로서의 활동보다 친목모임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진해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영남지역의 제대로 된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부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의 건립을 결의하였습니다.

2003년 2월 14일 개소한 저희 센터는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추구하며, 영남권지역 여성성적소수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호모포비아를 지닌 일반인들과 성소수자의 부모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제대로 알아가며, 그들의 친구,가족,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합니다.
영남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땅의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동성애 자체를 변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동성애자 사이트를 유해물로 인정하여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반'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적용시켰으며 유명 언론사들은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다시금 문제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의 당위성은 확보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성애자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 업무내용 ■

1. 상담
□ 내용 : 성적소수자 정체성, 커밍아웃 및 아웃팅, 동성간 성폭력 등
□ 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온라인상담
□ 대상 : 성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친구, 가족 등

○ 전화상담
센터의 상담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051)752-199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방문상담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고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센터 사무실 :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 온라인상담
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실'이나 E-Mail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womcenter@hanmail.net

2. 교육사업
□ 내용 : 성소수자정체성, 인권
□ 방법 : 강의 홍보 → 강의 요청 → 파견 강의
□ 대상 : 사회단체, 학생회, 소모임 등
3. 문화사업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 퀴어영화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고 친근하게 성적소수자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사업을 기획, 시행합니다.

4. 한국동성애자연합 연대사업
2002년 발족된 '한국동성애자연합'과 연대하여 법률개정 및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정책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여성인권연대사업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 후원회원가입 안내 ■
센터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센터 방문 및 회원가입서 작성
○ 자격
센터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는 자
○ 의무
후원회비 자동이체
후원계좌
농협 948-12-439486 예금주 부경여성센터
부산은행 059-12-088941-5 예금주 부경여성센터
○ 권리
센터의 총회 및 각종 행사의 참석권, 소식지 무료구독, 각종 소모임 활동

3.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레즈비언인권연구소(Lesbian Institute For Lwsbians)는
레즈비언권익연구소, 실천연구공동체, 열린연구소 입니다.
레즈비언의 시각으로 레즈비언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레즈비언의 목소리로 저항하며, 레즈비언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고, 레즈비언을 위한 급진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립한 인권 연구소입니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의 연구사업계획입니다.

[1] 레플총서 1권 발행
레즈비언인권연구소는 레플 총서 제작을 통해 한국 레즈비언의 현실과 삶을 되짚어보고 레즈비언의 시각으로 종합적 대안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 첫 번째 권은 한국의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사회의 레즈비언 관련 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간할 예정입니다.

[2] 한국레즈비언인권실태 보고서
지난 8월 레즈비언인권연구소는 한국의 레즈비언 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레즈비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 레즈비언들의 현실에 근접한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 기초설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소는 한국레즈비언 인권실태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3] 레즈비언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숨겨진 레즈비언의 역사의 발굴, 그간 진행되어온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관 건축 사업입니다. 체계적 자료 축적과 정리를 통해 현대의 레즈비언, 레즈비언 인권운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4] 레즈비언 공개 토론회 3회 개최 : 8월, 10월, 12월
지난 8월 레즈비언인권연구소는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시사적 이슈와 레즈비언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 (Lesbian Institute For Lesbians)는 비영리민간연구소입니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의 모든 연구와 활동은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자동이체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 E-mail 소식 : 연구소 활동 내용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레즈비언인권실태보고서」, 「LIFL 총서」, 토론회 자료집 등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 자료와 도서를 무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레즈비언 아카이브〉 정식 오픈 전에 운영되는 비공개 커뮤니티의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예금주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외환 048-22-03716-5 우리 018-712174-13-001 조흥 595-01-015270 국민 498101-01-075780 농협 037-01-311396)

〈레즈비언인권연구소〉라는 예금주명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음의 계좌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박수진 (조흥 333-04-761486)

홈페이지 : http ://lesbian.or.kr
이메일 : lifl2003@empal.com
전화 : 02)714-4017.

4.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반성폭력 네트워크

kirikiri.org/network
queer_adviser@yahoo.co.kr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임입니다. 너아까,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등 여성이반 커뮤니티와 단체 그리고 개인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성폭력 상담과 유관단체 연계, 법적 대응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가해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여성이반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며 가능한 많은 여성이반 모임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002년 7월 26일에 결성한 동성애자단체연대체입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삶과 그 가치를 박탈하고자 하는 도덕적, 종교적, 통념적, 정치적, 법률적 행위들로부터 동성애자들의 시민적 권리들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투쟁을 할 것을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 성적 소수자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떳떳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자 구성체들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의 성적소수자들 뿐 아니라 국제적 조직체의 성적소수자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 연대하여 한국성적소수자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보다 나은 한국 동성애자들의 삶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성의 억압에 근간 하는 모든 억압, 즉 여성,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등 기타의 모든 성 억압적 토대들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며 행동할 것입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유, 즉 외적, 내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들로 행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행위들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사회의 억압 받고 차별 받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에이즈감염인, 어린이, 노인, 빈곤층, 외국인 에이즈감염인 등에게 행해지는 모든 비도덕적, 비이성적 소외와 억압,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투쟁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시민단체사회 속에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관념적 '인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교육하여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 모임 <러브포원>,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전화 : (02)703-3542 FAX : (02)703-3543
E-MAIL : admin@lgbtkorea.org
Homepage :www.lgbt.or.kr
후원계좌 : 조흥은행 333-04-765635(예금주 : 박수진, 한동연)

▶ 조이토마토 -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

사이트 개요 :
조이토마토닷컴(http://www.joytomato.com)은 2002년 9월 30일에 오픈한 회원수 50여명의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입니다. 파란토마토(재학생)와 빨간토마토(졸업생)들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토마토 샐러드와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등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택 :
다양한 이화 이반 인맥을 제공해드립니다.
①공강시간에 이반 친구와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담배 태우고 싶으신 분, ②이반 친구와 함께 교양수업 들어보고 싶으신 분, ③개강파티를 이반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 ④이반 친구, 후배, 선배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 ⑤이반문화행사에 동행할 이반친구가 필요하신 분...조이토마토에서 다양한 이화이반 선후배를 만나보십시오.

영입대상 :
백과사전에는 채소로, 시장에서는 과일로 취급되는 토마토의 회색분자적인 이미지와 이화 이반, 둘 사이에서 공통된 코드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수 종자로서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귀하의 토마토적 재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조이토마토로 오십시오.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은 master@joytomato.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 → 편.집.후.기 및 Thanks to ←

마일아 작년만해도 문화제 멤버가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준비하면서 매우 즐거웠답니다. 구인 생 뭐 있 나 허 허

파스→ 세상은 바뀐다. 바뀌지 않으면, 바뀐다는 희망이 없으면 무너져 내버린다니깐..진리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하던적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지금의 현대 철학자들까지도 그리고 각기 사람마다 자기의 철학과 그들만의 진리가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그들만의 진리가 있는거지.. 그래서 말인데 기독교인들아 제발 너희의 진리라는것을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지 마라! 과정도 그렇고 너희가 내세우는 진리는 우리에겐 폭력에 불과하단다..

포↕포 평범하지만-모두들 수고했다는 말 꼭 하고 싶어요 ;ㅁ; 그리고 다들 고맙습니다.

↙나루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있던 내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 변날 친구들과 객원 활동가 분들께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 이 지면 지면을 채운 그대들은 정녕 아름다워라.

내 이야기에 눈물을 흘려주는 이성애자는 너가 처음이었다구, 커밍아웃 이후에도 좋은 우리 우정 -G양 고마워.

늦은 시각까지 일하고 발이 꽁긴 나를 위해 숙소를 제공해준 H양, 멀리 가있는 C양 등 우리 도박단 구성원들 -항상 행복합시다!

든든한 동언니와 시로언니, 서투른 내게 힘을 주는 끼리끼리 활동단. 큰 격려가 되어주는 지난 변날 활동가들(적,꾸,풍)...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조이토마토 멤버들! -정말 감사해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여성주의자 친구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모두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 잃지 말아, 사랑해.

그리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또 어떤 날은 꼭두새벽부터 커밍아웃하지 않은 변날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포스터를 붙여주신 철이님과 머글리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헤헤 언니들 최고라구!

마지막으로 산 넘으면 베지겠지? 니랑 내랑 한낮 길거리에서도 맘껏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일 때문에 피곤한 나 맘이 이해해주고 챙겨줘서 고마워. 널 만나 행복하다~ 누가 뭐라 해도 꽃꽃할 거야. :)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지금은 다만 '무사히' 문화제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싸리, 변태소녀 하늘을 날자!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던 날이 이제 내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오늘일까요.

땜 → → → → 노랗고 환한 포스터를 떼어내시는 분들.

방에 붙이실 것이라면 연락주세요.
공들여 만든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겠어요.

치 인

Above all 나루, 마틸다, 뺨, 어린, 코아, 파라, 파스, 포포 ZigZag : '함께'한 사랑들. ←

영화제 장소 기꺼이 대관해주신 이화 씨네마떼끄,
아웃팅 문제 때문에 포기할 뻔했던 영상을 틀도록 도와주신 영화과 누에,
그리고 늘 관심가져주시는 여성위원회 감사합니다.

소중한 청탁글 써주신 부산센터 써니님,
강연회 맡아주신 인권연구소 박김수진님 감사합니다.

문화제가 무사히 치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해주시고 그마만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죽어도 이 글을 볼 수 없을 엄마, 아빠.
좀 더 자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나의 동생.(눈물 주륵)

너 아니였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거야 나랑,
변날 정체성 시로언니(든든), 늘 도움 많이 주시는 틀언니,
깜잉고 연애만 하는 적분언니(참 좋은 사람),
늘 밝은 쇼핑파트너 꾸,
내 성질 다 받아주는 유끙(감사),
내귀에 도청장치 햄쓰,
공강시간과 시험기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많은 인연들,
그리고 고맙고 고마운, P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투쟁!

코 아 ↘

솔직히 후기...라는 지면에 손을 댈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핑계, 시간핑계 댈것 다 대면서 정작 글쓰기할땐 살살 빠진것(알아요).
이자리를 빌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다들 너무 애썼고,고마웠다는 말 하렵니다.

대학와서 정말 잘한건, 변날사랑이 된것. 단지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사회의 편견혹은 나 스스로 만든 틀에 억압되어 잃어왔던 '나' 를 되찾을 수 있게 해 준것만해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종 세미나시간에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지식들과 의식까지도... (앞장부터 죽~ 읽어와 벌써 이곳을 읽고계신 당신. 동성애의 경험을 간직하는, 그러나 가입을 망설이는 당신. 이제 레즈비언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된,아직까진 일반인인 당신까지도 - 기회는 충분해요:)

All kinds of love is love.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고 만사는 변방노인의 말이라
원래보다 일정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내일모레글피면 거사다.
인쇄되어 나온 이 글을 읽고 있을 땐 부디 "그런 적도 있었지"라고 미소와 함께 추억할 수 있길.
← ← ← ←어 린
그럼.

zig ↓ zag

이성애자인 척하며 건조한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당신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

두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자료집

발행일 2004년 10월 1일
편집위원 나루, 마틸다, 빰, 어린, 코아, 파라, 파스, 포포 휘린, ZigZag
편집디자인 나루
표지디자인 빰, 휘린

펴낸곳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Tel 02-3277-4712
E-mail flyinggurl2001@yahoo.co.kr